

2017년 문화선교연구원 문화포럼 1차

탈종교시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하나

발제자

백 광 훈 원장 (문화선교연구원)

최 태 연 교수 (백석대학교)

강 영 룡 박사 (소망교회)

일시 : 2017년 3월 10일(금) 오후 2시

장소 : 필름포럼

주관 : 문화선교연구원



목 차

발제 1 발제자 : 백광훈 탈종교 시대와 교회	4 page
발제 2 발제자 : 최태연 일자리와 사랑을 찾는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줄 것인가? -대중문화적 접근-	14 page
발제 3 발제자 : 강영룡 코뮤니타스로서 교회의 공적 참여	19 page
종합토론	27 page
질의응답	29 page
탈종교 관련기사 부록1	31 page
문화선교 연구원 소개 부록2	50 page

2017년 문화선교연구원 문화포럼 1차

탈종교시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하나

발제 1

“탈종교 시대와 교회”

발제자 : 백광훈 원장(문화선교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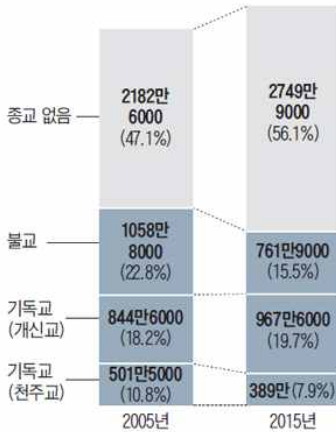
탈종교시대와 교회

백광훈 박사(문화선교연구원장)

1.

지난해 말에 발표된 통계청의 2015년 종교인구조사가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바로 비종교인구의 감소현상이 두드러졌는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교 없음’이라고 답한 이들이 이 전 조사에 비해 9%라는 큰 차이로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2005년 인구대비 47.1%, 2015년 인구대비 56.1%). 이로써 한국은 인구 분포상 비종교 인구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들보다 많게 되는 종교지형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 현상이 일시적인 것인지는 추후 조사를 통해 상관관계를 더 밝혀야 하겠지만, 이렇게 종교인구자체가 급격하게 감소한 것은 종교사회학자와 모든 종교인들에게 비상한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었다. 언론과 각종 연구단체는 한국사회에서 탈종교시대가 열렸다고 보도하고, 한국의 종교지형이 이제 비종교화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국민 절반 이상 종교 없고, 최대 종교는 개신교 단위: 명, 괄호 안은 비율



종교 유형별 인구 변화 (단위: 명)



2.

사실 탈종교 현상에 대해서는 보다 정확한 정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종교가 없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세속화의 전형적인 과정으로서 한국사회의 종교성 자체가 소멸되는 현상인지, 아니면 기존 3대 제도종교를 점유했던 불교, 기독교, 가톨릭을 탈피하여 대체 종교를 찾는 탈제도 종교 현상인지를 좀 더 명확해질 필요는 있다.

3

서구에서는 이른바 ‘세속화 vs 탈세속화’ 논쟁이 196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

었다. 세속화론은 근대화되면서 종교가 급속히 위축될 것이라고 보는 일반적인 경향이었던 면, 이러한 세속화론에 반대되는 종교의 여러 부흥 현상들이 제기되면서, 세속화론의 정당성을 강하게 주장했던 피터 버거조차도 자신의 견해가 틀렸음을 인정하는 ‘탈세속화론’을 주장하였다.¹⁾ 루만은 종교란 늘 존재하는 인류학적 상수이며, 단지 형식만이 변화하는 것이라고 보면서, 제도적 종교는 쇠퇴할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종교, 즉 사사회(privatization)된 개인 종교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²⁾³⁾

여전히 논란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종교가 위축된다고 일컬어지는 탈종교현상이란 실제로는 탈제도종교화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사회현상을 이해하는데 더 적절하다는 견해가 다수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제, 2004년 한국 갤럽 조사에 의하면 종교가 없다고 한 사람들의 51.3%가 이름이 운명에 영향을 준다고 믿고 있고, 30.4%는 궁합이 나쁜 사람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56.8%는 풍수사상을 믿고 있다고 응답했다.⁴⁾ 미국의 사례에서도 비슷한 보고가 있다 일반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에서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들의 39%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기도를 하고 있고, 51%는 신의 존재를 믿고 있다고 했고, 53%는 점성술을 믿고 있으며, 35%는 일 년에 한 번 이상 교회에 나간다고 했다.⁵⁾ 탈제도 교회 현상이란 그레이스 데이비(Grace Davie)가 영국 대중의 종교성을 ‘소속 없는 믿음’(believing without belonging)’으로 표현한 것처럼 겉으로는 세속화된 것처럼 보이는 종교 현실이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종교성의 위장막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조직화되고 관료화된 종교를 거부하는 것이 초월적 존재나 신비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거부하는 것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이러한 탈제도종교화현상은 사실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1960년대부터 발생하였다. 이 탈제도종교화는 당시 발흥된 영성운동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이 영성운동은 전통적인 제도종교에서 말하는 영성과는 다르다. 이것은 2차 세계 대전의 비극을 경험한 뒤 1960년대를 거치면서 서구 근대 자본주의의 물질적 외형적 풍요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소외, 불안, 고독, 불확실성 등과 같은 사회적 폐해,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그리고 국가의 제도 권력에 대한 비판과 저항에 따라 서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활성화된 ‘반문화운동’의 차원으로서의 ‘영성’에 대한 대중적 관심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영성 운동에 기반에는 특히 서유럽과 북미를 기반으로 하고 있던 기독교가 변화하는 사회 현실 속에서 적절한 응답을 내놓지 못한다고 판단한 대중 스스로가 대안을 찾아 나선 현상으로 뉴에이지 운동⁶⁾

1) 피터 버거. 『세속화나 탈세속화나』, 김덕영, 송재룡 옮김: 대한기독교서회, 2002.

2) 니콜라스 루만, 『보이지 않는 종교』, 이원규 옮김, 서울: 기독교문사, 1982..

3) 이 외에도 유럽의 종교 부흥현상을 분석하는 ‘합리적 선택이론’(rational-choice theory), 종교적 신념의 사회적 후퇴와 사사회(privatization) 테제를 반대하고 ‘공적 종교’(public religion)론 주장하는 카사노바(J. Casanova)의 공적 종교이론(예, 이란서의 이슬람혁명, 라틴 아메리카의 해방신학 등) 등은 세속화 일반 이론에 대한 반론으로 제시되고 있다.

4) 한국갤럽, 2004: 253-255.

5) Hamberg, and Miller, 2005: 13

6) 뉴에이지 운동은 1960년대 반문화운동과 상당한 유사성을 지닌다. 반물질주의, 지상낙원주의, 생태

과 같은 대체 종교가 급부상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탈제도종교화 현상은 요점은 결국 기성 제도 종교가 새롭게 부상하는 삶의 문제들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할 경우 대중들은 기성제도종교가 아닌 대체종교로 찾아 그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통계청 인구 조사에서 3대 제도권 종교인, 개신교, 불교 가톨릭 인구가 종교인구조사이래 지속적 상승곡선에서 하양곡선을 그리게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제도 종교가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제대로 대중들의 삶속에서 의미 있게 자리매김하고 있는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윤승용은 현재의 종교인구의 감소는 종교의식의 세속화나 서구적 탈종교 현상이라기보다는 한국사회의 불안과 생존위기로 야기돼 증대된 종교적 욕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기성 제도종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 현재 종교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보면, 한국종교들은 그들의 피난처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만일 이들에게 희망과 피난처를 적절히 제시했다면 이같은 종교인구 감소는 없었을 것이라 진단하였다.⁷⁾

5.

한편,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개신교의 증가 현상이었다. 사실 오늘 발표문에서 주로 살피고 있는 부분도 개신교의 종교인구 변화현상이다. 놀랍게도, 개신교 인구는 2005년도에 비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어 개신교인들에게 다소 당혹스러움을 안겨주었다. 필자 역시 개신교인구의 증가소식에 반가움이 먼저 들었지만 그동안 개신교인들과 신학자들이 여러 상황들을 통해 파악했던 현상과 달라 결과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미 주요 교단인 장로교, 감리교, 성공회 주요 교단의 교인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특히 교회학교의 급격한 감소현상은 당연히 종교인구조사에서 개신교인구가 줄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번 조사에 대한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들이 여럿 개진되었다. 눈여겨볼만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는 조사방식에 대한 신뢰도였다. 글로벌리서치 지용근 대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인터넷 조사를 병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상대적으로 고학력층이 많은 개신교에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두 번째는 종교적 신념이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 개신교는 가족 모두의 종교로 다른 종교보다 더 충성도가 높다는 것이다. 센서스에 응답한 가족이 다른 가족에 예전에 교회에 간 것을 떠 올리면서 그 가족은 개신교인으로 표시할 가능성이 많고, 이것이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자연 증가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정재영에 따르면 10년 전에 비해 전체 한국 인구가 270만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기독교인구도 자연 증가했다는 것이다. 10년 전 개신교 비율이 18.2%

계의 보존 관리, 기존 도덕체계의 거부, 주술에 대한 관심 등에서 그러하다. 이러한 뉴에이지 운동은 전통적인 서구 문화에 대한 대안적인 접근에 의해 특징지어진 광범위한 종교 또는 운동으로 정의된다. 전명수, <종교와 대중문화>, 21세기 종교사회학, 199쪽.

7) 윤승용, “2015 인구센서스의 종교인구 변동이 던지는 의미와 과제”, <한국의 종교, 탈종교화에 대응할 수 있다: 2015 인구센서스의 종교인구변동이 의미와 과제 세미나집> 2017년.

였다면 50만명 정도 증가하게 된다.⁸⁾ 넷째, 이단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인구주택총조사 지침서에는 "여호와와 증인, 안식교, 모르몬교, 통일교, 성공회, 영생교, 천부교를 개신교로 분류한다"고 되어있다. 변상욱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구원파 등의 이단 역시 자신들을 기독교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몰몬교, 제칠일안식일 교회, 베티아 성락교회, 만민중앙교회, JMS, 다락방 운동 등의 이단들의 급격한 성장도 기독교인 증가현상에 일조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⁹⁾ 다섯 째, 가나안 성도 현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나안 성도는 본인은 개신교도라고 생각하지만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는 이들인데, 이들이 설문조사에서는 기독교인으로 대답할 것이기 때문이다. 출석교인은 줄지만, 인구센서스의 개신교 인구에 반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개신교인이 늘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추가적인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고 개신교계의 전반적인 반응으로 보인다.

6.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신교의 선방 혹은 약진을 설명하는 이유들도 제기되고 있다. 바로 개신교가 지닌 정체성 의식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신교의 신뢰도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개신교가 탈종교분위기 속에서 증가세를 유지하는 까닭은, '강한 정체성(strong identity)'에 호소하는 개신교의 선교전략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신교인의 정체성을 주일 예배, 제자 훈련, 교육, 전도, 선교를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개신교의 특성, 부모세대의 종교를 따라 개신교인이 되는 20세 이하의 비율이 이전보다 감소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타종교에 비하면 월등히 높다는 점(9세 이하 연령대에서는 63%의 점유율을 보이고, 10대 연령대에서는 59%의 점유율을 차지함)이 개신교 인구의 증가세를 유지하는 이유일 수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윤승용은 불교와 가톨릭의 침체와 개신교의 증가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그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신자유주의와 저성장 기조, 그리고 탈근대의 문화조류 등 한국의 사회적 상황이 종교지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파악한다. 신자유주의와 양극화현상은 개인주의의 극대화과 공동체를 붕괴를 가져왔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종교적 보호막 쌓아 안식처를 찾으려 한다. 한편 지속된 포스트모던적 경향은 기존의 가치와 조직을 해체시키면서 세속과의 융합현상, 그리고 영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종교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양극적 상황을 '근본주의와 영성'의 양극화라고 표현하였다. 그는 근본주의적 신앙은 개신교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제도종교를 더욱 강화시켜 신앙집단을 통한 피난처가 되었다면, 탈제도적인 영성은 명상이나 수련을 강조하는 불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불교 종교인구를 감소시키는 영향을 가져왔고, 불교인구의 급격한 감소가 결국 종교인구의 하락을 가

8) 정재영, "인구센서스에 나타난 종교 인구 변동의 의미: 한국의 종교 상황, 이렇게 변하고 있다"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 청어람 ARMC, 학원복음화협의회, 한국교회탐구센터 공동주최(2017년) 포럼 자료집.

9) 변상욱, "개신교 증가의 이면 상황을 직시하자: 교계 상황과 이단문제"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 청어람 ARMC, 학원복음화협의회, 한국교회탐구센터 공동주최(2017년) 포럼 자료집

저왔다는 것이다.¹⁰⁾

7.

그렇다면, 우리는 2015년 종교인구조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먼저 우리는 이 통계 결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면서 특히 개신교를 비롯하여 종교인구조사 결과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들에 귀를 기울이면서 추가적인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독교의 고령화와 젊은 층의 교회 이탈현상을 통해 개신교 역시 탈종교화 혹은 탈교회 현상을 빠른 시일 내에 맞이하게 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특히 이번 2015 종교인구조사에서 교회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다.

개신교의 경우, 연령대 증감 분포도를 보면, 9세 이하 -17%, 10대 -8%, 20대 -20%, 30대 -6%, 40대 +16%, 50대 +67%, 60대 이상 +80%의 증감을 보였다. 이것은 한국교회의 고령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30대 이하의 젊은 층의 탈기독교화현상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도 마찬가지로 최근 10년 새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중 종교를 가진 사람은 2004년 54%에서 2014년 50%로 떨어졌다. 연령별 비종교 인구는 19~29세 69%, 30대 62%, 40대 49%, 50대 40%, 60세 이상 32%로, 30대 이하의 이미 과반을 훌쩍 뛰어 넘은 상태이다.

8.

사실 젊은이들의 탈교회 현상은 기독교가 지배적 종교위치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미국공공종교연구소(PRRI)의 최신 보고서 '엑소더스: 미국인들은 왜 종교를 떠나는가, 그리고 왜 돌아올 것 같지 않은가'에 따르면 젊은 세대에서 신을 믿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2016년 9월 22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9세부터 20대 청년층에서 비종교인 비율은 30년 전보다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신을 무신론자로 밝힌 비율이 25%로 10년 사이 10%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젊은 세대에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종교에 대해 실망한 이유에 대해서 29%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종교인들의 배타적 태도와 부정적 설교로 종교 생활을 그만두게 되었고, 응답자의 19%는 성직자의 재정과 성추문 등을 들었다. 16%는 "교회 집회(예배나 미사)가 너무 정치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종교를 버렸다"(정치편향성에 대한 불만)고 응답했다. 비종교인 3명 중 1명(32%)은 단순한 이유였다. 가족 중 자신을 데리고 교회나 성당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학교 이상의 고학력층에서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신앙 유무를 결정하는 자발적 종교 거부자, 이른바 무신론자가 38%로 나타났고, '교회에는 다니지 않지만 신을 믿는 '비자발적 종교 거부자'의 65%가 고졸 이하의 학력에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60%에 해당하는 다수의 응답자가 '종

10) 윤승용, 위의 글.

교에 대한 믿음과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¹¹⁾

기독교 전문 연구 기관, 바나 리서치 그룹의 대표인 데이비드 키네먼의 연구도 이러한 상황과 맥락을 같이한다. 그는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에서 미국교회에서 청년들의 탈교회화 현상을 분석하면서, 그는 이러한 세대들이 교회와 단절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문화, 신앙과 과학의 대립, 깊이 없는 믿음, 성(性)에 대한 경직된 태도, 가로막힌 질문 등이 젊은 세대로 하여금 교회를 떠나게 한다고 말한다. 그는 교회가 주목해야 할 젊은 세대를 유목민 유형(교회 활동을 하지 않지만 여전히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여기는 이들), 탕자 유형(믿음을 잃고 스스로를 '더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유형), 포로 유형(여전히 기독교 신앙을 유지하고 있지만, 교회와 문화 사이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유형)으로 나누면서, 교회 안의 젊은 세대가운데 상당수가 포로유형과 유목민 유형에 속해있으며, 이들에 대해 교회가 적절하게 응답하지 않을 경우, 언젠가 탕자 유형과 같은 탈기독교, 탈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¹²⁾

한국교회지도자센터 2015년 조사에 따르면¹³⁾ 30대 이하가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보다 한국적인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다. 이 조사에 따르면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몇 가지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는데, 교회 지도자부분에 있어서는 교회운영실망(27.3%), 교역자 실망(20.3%), 과다한 헌신 요구(19.6%), 청년 배려 미흡(12.3%)가, 관계/공동체 부분에 있어서는 배타적 분위기(25.8%), 교인에게 상처(24.7%)가 주된 이유로 나왔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흥미로운 결과를 보게 된다. 개인/가정 부분에서 30대 이하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로, 고난과 위기(21.7%)¹⁴⁾, 부모의 신앙 강요(16.9%)로 1.2위를 나타냈으며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는 취업난·경제난(27.3%)¹⁵⁾, 과다한 업무(19.4%),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몰라서(18.1%), 세속화된 가치관(15.7%)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학원복음화협의회 조사(2012)에 따르면(대학생, 석/박사 대상) 교회 경험 있는 비기독교인의 이탈 이유로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어서(34%), 교회 밖의 배타적 태도(28%), 불법적/강압적(15.7%) 비도덕적 모습(15.7%), 의심에 비우호적(14.8%), 헌금 강요(13.9%), 교인/목회자 실망(12.9%), 권위적/비민주적(11.2%) 순으로 나타났다.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매우 복잡적이어서 단순화시키는 어렵지만, 몇 가지 간추려 보면, 교회가 자신의 삶에 상황들(위기상황, 혹은 일터와 직장생활)속에서 별다른 의미를 주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교회의 배타적인 태도, 반과학적/반지성적인 경향, 목회자의 정치적인 편향성, 성(sex)과 재정에 관련된 목회자의 윤리 문제 등 요인들이 젊은

11) <http://www.catholicpress.kr/news/view.php?idx=3123>

12) D. 키네먼, 『청년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선숙 옮김, 서울:국제제자훈련원.

13) 임성빈, “예코세대 설문조사에 대한 목회신학적 분석”, <제9회 바른신학균형목회 세미나> 자료집 중

14) '고난과 위기'가 신앙의 이탈요인인가, 유인요인인가는 구분이 필요하다.

15) 여기서 우리는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에 들어간 다음에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교회를 떠났는가?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교회 공동체에서 관계를 맺기 어렵게 했는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세대의 탈교회 현상으로 이어지는 주요한 요소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9

그렇다면, 이러한 젊은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탈종교 혹은 탈기독교 상황에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먼저 교회는 교회 역시 탈종교현상가운데 있음을 먼저 겸손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양희송은 2015년 한국 종교인 조사결과를 곱해할 경우, 개신교가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까지 공세적 방법으로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을 지속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세적인 전도, 동성애, 이슬람, 북한에 이슈에 대해 보수적 사회 이슈의 보루로 자처함으로써 결집 효과를 보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될 수록 교회 밖 제도권 바깥에 존재하는 이들, 이른바 100만 가나안 성도들의 증가현상을 가져오거나, 질적으로 자기 주관성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다.¹⁶⁾¹⁷⁾ 제도종교로서 기독교 진영에 속해있는 이들이 탈기독교화 될 때, 바로 비기독교인 혹은 반기독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1차적으로 가나안 교인이 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때, 이들이 이 새로운 유형의 신앙여정에 정착하지 못할 경우, 키네만이 말한 탕자 유형, 이른바 비기독교인으로 전이될 수 있다. 공세적 방법으로서 정체성 강화는 그야말로, 이러한 2015년의 종교인구통계를 오독하고, 탈종교화시대에 응답하는 적절한 방법이 되기 매우 어려워 보인다.

10.

한국교회는 이러한 탈종교, 탈기독교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책임적으로 응답할 수 있을 것인가. 탈교회화 현상에는 여러 이유가 존재하고 각 상황에 대해 개인적이고 적절한 반응이 필요하기에 세대 전체를 아우르는 해법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단순화의 위험을 무릎 쓰고 몇 가지 점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교회의 탈종교화 지형을 통해 한국교회공동체로 하여금 좀 더 겸손하게 새로운 존재방식을 모색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비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 중 56.1%로 과반을 넘었다는 점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기독교가 제1종교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8%에 머물고 있다. 앞으로 물론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북미에서는 복음주의 계열의 교회들이 부흥하고 있고, 남미에서는 오순절 계열의 교회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기독교는 부흥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서구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는 교세가 하향곡선가운데 있으며, 한국의 개신교 역시 이번 2015년 종

16) 정재영은 가나안 교인을 소속되지 않은 신앙인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특징은 강요받은 신앙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의 소통단절의 문제를 겪고 있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보여주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에 실망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기보다는 자신의 입장에서 취사선택하여 자기 자신의 종교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재영, '소속 없는 신앙인에 대한 연구', 현상과 인식 37(4), 한국인문사회과학회, 93-99쪽.

17) 양희송, "샤이(shy)-개신교"와 "강한 정체성"의 딜레마: 청년 세대와 가나안 성도, <개신교는 과연 약진했는가?>, 청어람 ARMC, 학원복음화협의회, 한국교회탐구센터 공동주최(2017년) 포럼 자료집, 29쪽.

교인구 조사에서 보는 것처럼 고령화와 함께 향후 축소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 교회는 다원화된 세계 속에서 많은 행위자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비종교화 되는 세계 속에서 점차 주변적 존재가 되갈 수 있음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축소 현상에 대해 개신교가 자신의 정체성을 공격적으로 강화하고 외부와 담을 쌓는 방식으로 정체성과 주도권을 확보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회는 세상을 지배하거나 혹은 주도적 질서를 행사하려는 콘스탄틴적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전략이 결코 성공하지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미국의 젊은 세대들은 기독교가 정치적인 힘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기독교의 정치화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기독교가 주변화 된다는 것이 교회의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 미로슬라프 볼프(M. Wolf)는 점차 주변화 되는 교회가 지녀야 할 지혜에 대해 말한다. 교회는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음도, 그렇다고 세상에 적응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면서, 다원화된 세상 속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자세는 "세상을 고치기 위해, 인간의 번영을 위해, 그리고 공공선을 위해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며 기독교 정체성을 말과 행동을 통해 삶으로 세상 속으로 투사"¹⁸⁾하는 자세가 더욱 요청된다고 말한다.

둘째, 탈종교·탈교회의 징후를 바라보면서, 이것을 종교의 위기, 혹은 기독교의 교세 회복의 관점에 방점을 두는 방식을 탈피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이러한 탈교회적 시대의 징후를 바라보면서 오늘의 한국 기독교가 이미 서구교회가 1960년대 이후 경험한 것처럼 신앙인들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에 호응하지 못함으로써 배척당하고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대중들은 자신들의 삶의 문제와 종교가 상관없다고 느낄 때,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 종교가 별다른 해답을 줄 수 없다고 느낄 때 기존이 제도 종교를 떠나 대체종교를 찾거나 때론 반종교화 되기도 한다. 개신교의 경우,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를 보면 삶의 중요한 물음에 대해 교회가 적절하게 응답하지 못할 경우 교회를 떠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교회지도자센터 설문조사(2015)에서 보는 것처럼 젊은 세대들이 고난과, 경제적 위기 등으로 인해 교회를 벗어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것이 신앙의 이탈 요인인가 유인 요인인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인생의 위기 상황들, 취업난과 경제난과 같은 사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며 그들이 의미 있는 격려와 가이드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을 추정해볼 수 있다. 한국교회는 젊은 세대들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돌봄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이 겪는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갈 수 있는 의미를 부여해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일과 소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성경적 신학적 응답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교회에 만연한 성/속 이분법적 구별 지음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로서의 일터와 직업, 일상의 영역들을 적극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목회적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셋째, 교회 이탈의 문제에는 신앙의 성숙 문제가 배제될 수 없다. 달리 표현한다면

18) 볼프, 『광장에 선 기독교』, 김명운 옮김 서울: IVP 2014, 120쪽.

젊은 세대가 더 깊은 신앙을 구비할 수 있도록 교회의 다차원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것은 공격적인 의미에서의 정체성 확립과 관련이 없다. 급변하는 문화적 소용돌이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거대한 도전을 받고 있으며 이 상황은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교회가 보유한 예배와 기도, 성경연구, 제자훈련, 영성훈련 같은 자원은 여전히 중요하지만(적어도 40대 이후의 세대들에게), 새로운 세대의 고민과 실존에 응답하는 변화를 필요로 한다. 탈근대적 사상의 조류들, 물질주의적 소비문화, 성(sex), 생명, 집중하는 세계의 복합성과 다원적 상황 속에서 교회가 지닌 신앙 성숙을 위한 자원들이 유효한 실존적 적절성을 지니면서, 의심을 가로막지 않는 개방성 속에서 젊은 세대들의 신앙성숙을 돕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유사한 맥락에서 교회는 반지성적/반과학적 태도를 지양하고 과학 문화에 성실히 답해야 한다. 교회는 반과학적 태도에서 벗어나 과학이 제기하는 문제들과 소통할 필요가 있다. 바나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과학관련 직업을 갖고 싶어 하는 청년들은 52%에 달하지만(2009년), 한 해 동안 과학관련 설교를 한 청년 지도자는 1%에 불과했다.¹⁹⁾ 교회는 과학주의에 대해서는 비판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반과학적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반과학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으로 젊은 세대들이 자신의 재능과 지적 능력을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현대 과학 문화에 성실히 답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갖추게 될 때 과학적 지성을 가진 이들을 잃지 않게 될 것이다.

다섯째, 교회 공동체는 배타적인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의 세대들은 젠더문제, 성적 개방, 소수자 문제에 대한 관심 등 이전과는 다른 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해왔다. 젊은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에 비해 신학적, 종교적으로 폭넓은 견해들에 노출되어 있다. 오늘날 교회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회 한복판에 서있다. 조사에 따르면 젊은 유목민 유형과 탕자 유형의 사람들은 배타성을 기독교의 가장 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한다.²⁰⁾ 포스트모더니즘과 다원주의의 세례를 받은 젊은 세대들에게 교회는 관대함이 없는 집단으로 비친다. 20대들은 동성애자에 대해서도 사회와 교회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동성애에 대해 거부감을 느끼고 있지만 동성애자가 차별을 받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점에 대해서는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열심히 찾아다녔던 사람들(억압받고, 가난하고,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을 교회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동성애에 대한 문제만이 아니다, 사회적 소수자들, 타종교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이다. 교회는 '타인'을 향한 공감을 키우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유일성(배타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목회자의 윤리성 강화를 통한 신뢰회복과, 교회성장일변도에서 벗어나 교회의 공공성 회복 등과 같은 문제 역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의 탈종교, 탈교회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교회가 응답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19) 키네만, 위의 책, 193쪽

20) 키네만, 위의 책, 247쪽.

논의의 후반부가 젊은 세대의 교회 이탈과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가 모아지긴 했지만, 이것은 탈종교화시대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보인다. 왜냐하면 결국 탈교회의 관점에서 보는 탈종교회의 결정적 요인은 현재 30대 이하로 대변되는 청년층의 문제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한국사회의 탈종교화가 기성종교에 대한 실망과 대안의 부재에서 오는 탈제도종교화 현상이라면, 결국 한국 교회의 과제는 탈교회화의 주요 변수가 될,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직면하고 있는 삶의 여러 정황들, 신자유주의와 양극화로 인한 경제적 위기와 취업난, 소비문화와 물질주의 시대 속에서 직업과 소명의 문제들, 탈근대적 조류가 불러오는 문화적인 도전들, 배타성의 극복 등 새롭게 부상하는 21세기적 삶의 상황들 속에서 교회공동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따라 한국사회의 종교지형 속에서 그 모습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할 교회의 과제가 남아있다. 2015년 종교인구조사가 교회에 주는 의미는 그래서 더욱 특별하다.

2017년 문화선교연구원 문화포럼 1차

탈종교시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하나

발제 2

“일자리와 사랑을 찾는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줄 것인가
-대중문화적 접근”

발제자 : 최태연 교수(백석대학교)



일자리와 사랑을 찾는 시대에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인가?

- 대중문화적 접근 -

최태연(백석대 기독교철학)

1. 프롤로그

교회가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교회는 어느 시대나 '구원의 방주'라 불려진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여야 한다. 그러나 시대에 따라 배 모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구원의 방주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 교회는 이 시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독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허드슨 테일러가 중국인들을 전도하기 위해 중국옷을 입었던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과연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필요로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가?

나는 이 시대를 '일자리와 사랑을 찾는 시대'라고 규정하고 싶다. 이 시대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일자리와 사랑을 찾고 있다. 그만큼 당연했던 것이 희귀해졌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인류 보편의 요구인 행복한 삶을 보장해 주는 두 조건 '일자리와 사랑'이 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시대'인 삼포시대란 말이 왜 나왔나를 주목해야 한다. 남녀 간의 사랑의 결과로서 자녀를 가진 가정을 유지할만한 일자리가 없으면 사랑조차 포기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청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삼포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들은 안정된 일자리를 열망하고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시대에서 구원의 방주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일자리와 사랑을 찾는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접촉점으로 하여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야 하지 않을까? 자 그럼 대중문화, 특히 최근의 대중영화에서 이 접촉점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자.

2. 절망적으로 사랑을 갈망하는 사회

2015년 오승욱 감독의 영화 <무뢰한>은 강렬한 사랑의 영화다. 이 영화는 이 사회 양지의 일자리 경쟁에서 밀려난 청년들의 비극적인 삶을 다룬다. '무뢰한'의 사전적인 뜻은 "일정한 직업 없이 돌아다니는 불량한 사람"이다. 그 의미대로 그들은 정상적인 일자리와 돈이 없어 희망없는 삶을 산다. 영화의 주인공 김혜경(전도연)은 경쟁에서 밀려난 서울 번두리의 룸살롱 마담이다. 혜경의 애인 박준길(박성웅)은 뒷골목의 건장한 행동대장이다. 그는 혜경에게 빚독촉을 하며 괴롭히는 불량배를 살해한다. 사실 혜경과 준길의 삶을 뒤에서 지배하는 사람은 잘 나가던 마담 혜경을 성적 노리개로 두고 준길을 행동대장으로 고용했던 조폭기업가 박정호 회장이다. 그는 단 한 컷도 등장하지 않지만 이 영화의 스토리를 이끌어간다. 이들의 관계에 형사 정재곤(김남길)이 등장한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재곤은 혜경 주위의 무뢰한들을 협박하여 혜경이 일하는 살롱의 영업부장으로 위장취업한다. 그의 목적

은 혜경을 통해 잠적한 준길을 체포하는 데 있다. 박 회장은 형사 재곤에게도 접근하여 혜경을 뺏어가고 자기 조직원을 죽인 준길에게 복수하려 한다. 재곤은 혜경의 집에 도청기를 장치하고 밤에 혜경을 찾아온 준길을 체포하려다가 실패한다. 매일 밤 혜경의 집 앞에서 잠복근무를 하는 재곤은 범죄자의 애인인 혜경에게 점점 끌린다. 혜경 역시 정체가 모호하지만 자신에게 잘해 주는 재곤에게 마음이 흔들린다. 쫓기는 상태에서도 도박으로 빚을 지고 상해로 밀항하려는 준길은 혜경에게 같이 도망하자고 하면서 3000만원을 구해올 것을 요구한다. 자기를 위해 살인까지 한 준길을 배신할 수 없는 혜경은 외상값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결국 돈을 마련하지 못한다. 이 때 재곤은 박 회장의 돈을 빌려서 준길을 잡으려 한다.

영화의 절정은 혜경에게서 돈을 전달 받으려다가 경찰에게 포위된 준길이 격렬하게 저항하자 재곤이 준길을 사살하는 장면이다. 그 후 마약중독자인 박 회장 조카의 수발을 드는 여자로 전락한 혜경에게 재곤이 다시 접근한다. 재곤은 회장 조카를 마약사범으로 검거하지만 혜경의 복수의 칼에 배를 찔린다. 재곤은 혜경의 칼을 맞고도 다른 경찰들에게 괜찮다고 하고 홀로 피를 흘리며 새벽길을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다. 왜 그랬을까? 이 질문은 이 영화를 내내 지배하는 질문과 이어진다. 왜 준길은 별 것 아닌 일로 같은 주먹세계의 후배를 죽이기까지 했을까? 왜 형사 재곤은 준길을 죽이고 사건이 종결된 뒤에도 혜경을 찾아갔을까? 왜 혜경의 칼에 찔리고도 동료 경찰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이 영화의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왜 혜경은 모든 상황의 배후 지배자인 박 회장을 마다하고 조폭 행동대장 준길에게 끌렸던가? 단 하나의 대답이 가능하다. 사랑 때문이다. 이 영화는 어두운 분위기와 비극적인 결말에도 불구하고 음지의 사람도 진실하고 헌신적인 사랑을 갈망한다는 사실을 더 강렬하게 보여준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외롭고 세상에 실망하기에 더 간절하게 사랑을 원하는지도 모른다. 투자자들의 기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만든 오승욱 감독은 무뢰한의 세계에서조차 상대방 인간에게 실낱같은 예의를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다. 그 예의는 사랑에서 나왔다.

최근에 개봉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미국 로맨틱 스릴러 <얼라이드>도 사랑에 관한 비극이다. 2차대전 중 영국 정보국 장교 맥스 바탄(브래드 피트)은 모로코에 투입되어 프랑스 비밀요원 마리안 부세주르(마리옹 꼬띠아르)와 함께 모로코 주재 독일대사를 암살하는 임무를 맡는다. 맥스는 처음에 성공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마리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둔다. 그러나 작전을 하루 앞두고 내일 살아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맥스는 마리안을 받아들인다. 두 사람은 독일 대사를 성공적으로 암살하고 런던으로 탈출한다. 사랑에 빠진 맥스는 마리안과 결혼하고 얼마 후 독일의 공습 속에서 딸 애나를 낳는다. 그렇게 행복한 1년이 지나가고 맥스는 정보국의 호출을 받는다. 정보국은 무선교신을 감청하여 마리안을 스파이로 의심한다. 결국 마리안이 애나를 죽이겠다는 독일 스파이들의 협박에 굴복하여 스파이 활동을 한 사실이 입증된다. 프랑스로까지 날아가서 자기 아내가 진짜 부세주르인지 확인하려고 한 맥스에게 마리안은 자신이 가짜 부세주르고 독일 스파이임을 고백한다. 모든 것이 명백해진 맥스는 1시간 내로 아내를 사살해야만 자신이 반역자로 몰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내와 아기를 데리고 비행장으로 가서 빗 속에서 영국 탈출을 시도한다. 그러나 급하게 출동한 정보국 상관 프랭크(재러드 해리스)에 의해 이륙이 좌절되

자 마리안은 아기를 맥스에게 부탁하고 현장에서 권총으로 자살한다.

이 영화도 서로 죽어야만 사는 전쟁의 가혹함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국가의 이념과 장벽마저도 넘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록 맥스는 마리안이 적국의 스파이인줄 모르고 사랑에 빠졌지만 이제 마리안은 더 이상 독일 스파이가 아니라, 자기 딸의 어머니이자 영원한 연인이었다. 이 영화도 인간에게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힘으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준다.

3. 필사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사회

2016년 칸의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켄 로치 감독의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심장병으로 직업을 잃은 목수 다니엘 블레이크의 이야기다. 사실 이 영화는 영국 보수당의 고용 및 복지정책을 비판하는 영화다. 영국 뉴캐슬에 사는 다니엘(데이브 존스)은 수십 년을 목수로 성실하게 일하다가 아내와 사별하고 심장병을 얻는다. 의사는 그에게 직장을 쉬고 요양하면서 재활운동을 시작할 것을 권한다. 그래서 영화는 다니엘이 지역 고용복지부서에 전화해서 질병수당을 신청하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다니엘의 질병수당 신청은 건너나 쓰거나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거부된다. 하는 수 없이 다니엘은 며칠 동안 고생한 후 옆집에 사는 젊은 흑인 청년의 도움으로 간신히 구직수당을 인터넷으로 신청한다. 구직수당을 받으려면 구직을 위해 노력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하므로 그는 할 수 없이 여기저기 다니며 구직활동을 한다. 어느날 그는 복지부서에 갔다가 면담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수당신청을 거절당한 젊은 엄마 케이티(헤일리 스콰이어)를 도와주게 된다. 케이티는 런던에서 살다가 임대료가 너무 올라 하는 수 없이 두 아이를 데리고 난방도 없는 값싼 집이 있는 이 도시로 이사한 터였다. 그 후 다니엘은 케이티네의 화장실 변기도 고쳐주고 당장 돈이 없어 먹을 것을 사지 못하는 케이티를 교회가 운영하는 식료품 급식소로도 안내해 준다. 케이티도 구직수당을 받기 위해 청소인력으로 일자리를 구하다가 딸 데이지가 밑창이 떨어진 신발때문에 학교에서 놀림을 받아 불법 성매매 업소에 나가 돈을 벌기 시작한다. 마침내 다니엘은 구직수당 신청을 포기하고 질병수당을 타기 위해 항소를 신청하면서 복지부서 벽에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질병수당을 신청한다”는 그래티피를 그리고 경찰에 체포된다. 결국 그의 항소는 받아들여져 다니엘은 다시 관계를 회복한 케이티와 질병수당 재심을 받으러 간다. 이번 재심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지만, 긴장한 다니엘은 화장실에서 심방마비를 일으켜 쓰러진다.

이 영화는 세계 6위의 경제대국 영국에서 직장을 잃은 신빈곤층의 현실을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여준다. 직장을 잃고 저축이 소진된 이들에게 재취업은 수백대 일의 경쟁을 견뎌내야 하는 힘든 과정이고 정부의 구직수당에 의존하여 근근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뿐이다. 케이티는 다니엘의 장례식에서 항소를 위해 준비한 그의 글을 읽는다. 그 글에서 다니엘은 자신이 자본주의 사회의 한 부속품으로 대우받기를 거부한다. 그는 성실하게 살았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은 시민으로서 영국 정부에 인간적으로 존중받을 것을 요구한다. 두 번의 동거와 출산을 거쳐 홀로 된 워킹맘 케이티는 교육의 기회가 중단되어 신빈곤층으로 전락한 여성을 대변한다. 이 영화는 물려받은 재산도 저축도 없는 서민층이 직장을

있으면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잘 보여준다. 그렇기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일 자리를 구한다.

4. 그들에게 교회가 할 일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을 지향한다. 기독교가 죽음 후의 부활을 믿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만, 믿음에는 삶이 따라야 한다. 기독교 신앙이 삶의 변화를 가져오려면 사람들의 삶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일자리와 사랑을 갈망하며 찾는 이들에게 교회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찾고 또 찾아야 한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고 자신의 개인적 소회를 밝힌 SF작가 이서영의 글이다. “... 아빠는 무릎이 불편하다. 집이 망하고 난 다음부터는 차를 몰 수 없기 때문에 지하철을 타고 걸어야 하지만, 아빠는 점점 더 무릎이 안 좋아졌다. 언젠가 가족이 외식을 하는데 아빠는 빨리 걸지를 못해서 점점 뒤쳐졌다. 엄마와 동생과 나는 조금 앞서 걷다가 아빠를 기다렸다가 다시 걸기를 반복했다. 아빠는 점점 뒤쳐지더니, 갑자기 어느 순간 ‘나는 그냥 집에 가겠다’고 선언했다. 그것도 우리를 쫓아와서가 아니라 엄마에게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서. 우리는 아빠를 굳이 찾으려고 들지 않고, 그냥 차를 마시러 가버렸다... 아빠를 굳이 찾으려고 하지 않고 먼저 집에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로 아빠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다... 오늘은 교회에 갔더니 야고보서 5장을 읽게 되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심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서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심판하실 분께서 이미 문 앞에 서계십니다.’ 자신의 올바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근거로 타자를 끌어안는 공동체라니. 그런게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정말로 있었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과 싸울 수 있다고 믿었던 시절이라는 게 정말 있었나. 나는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눈물이 절끔 났고 그냥 인간 다 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예수님, 미안”¹⁾

이서영의 글에는 이 사회의 약자들이 기독교와 교회를 보는 시선이 담겨 있다. 재산과 직장을 잃고 아픈 다리로 걸어야 하는 이들에게 교회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신학책과 설교문이 아니라, 이 저널리즘 글 속에 답이 들어 있다고 생각한다. 교회는 심판하실 분 앞에서 ‘자신의 올바름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근거로 타자를 끌어안아야’ 한다. 이 엄연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일어나야 한다.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도록 기도하고 엘리야 시대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는 곡식이 자라게 하는 일(약 5:16~18)을 교회가 해야 한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 그러면 교회는 “죽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그(교회)의 많은 죄가 용서를 받을 것”(약 5:20)이다.

1) http://www.huffingtonpost.kr/seoyoung-rhee/story_b_13575250.html?utm_id=daum (2017. 3. 5)

2017년 문화선교연구원 문화포럼 1차

탈종교시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하나

발제 3

“코뮤니타스로서 교회의 공적 참여”

발제자 : 강영룡 박사(소망교회)



코뮤니타스로서 교회의 공적 참여¹⁾

강영룡 박사 (소망교회)

1. 프롤로그

탈종교시대에 교회의 공적 책무를 이야기하는 것은 버거운 일이다. 오늘날, 개인의 영적 탐색의 조건이 바뀌었다. 찰스 테일러의 말처럼 ‘신앙의 하나의 선택지’가 된 세속의 시대에는 한 개인이 자신의 영적 열망을 해소하기 위해 굳이 전통 종교를 선택해야 할 필요가 없다. 얼마든지 영적인 프로그램을 소비할 수 있고, 자신의 신념과 다른 종교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지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뿐 아니다. 기성 종교에 실망하고 종교를 이탈하는 사람들의 비율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개인의 충만한 영적 경험을 제공하는 종교의 기능은 차치하더라도, 사회 성원들이 사회 윤리와 에토스의 보루가 되어야 할 기성 종교에 대해 절망하고 있다는 말이다. 종교가 점차 정치화하고 기성세대의 논리를 재생산하는 등, 종교 본연의 전복성과 혁명성을 상실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에 대한 전망을 기대하는 세대에게 고루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오늘날처럼 다원화된 사회에서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는 ‘높은 무엇에 대한 열망’을 가진 개인에게 뜻밖의 경험을 제공하는 등, 종교 본연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세속의 시대의 하나의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다양 다기한 사회 안에서 윤리적 자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적인 개인의 영적인 욕구를 채워주어야 하며, 동시에 공공 영역에서 통합과 변혁에 기여를 하는 공적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탈종교시대는 종교의 사회적 맥락과 개인의 영적 탐색의 방식 자체가 변한 시대다. 그러니까 무엇이 교회가 말아야 할 공적인 역할이냐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대이고, 다원적인 공동체 안에서 교회의 존립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와 역할 부여가 필요한 시대다. 그런 점에서 본고는 탈종교 시대의 교회의 공적 역할 자체를 재정의 하려는 하나의 실험적이고 이론적인 시도다.

2. 공동체와 공공영역

정치 철학자 준이치(Saito Junichi)는, 공동체가 특정한 신념을 공유하는 성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균질한 가치로 채워져 있다고 한다. 반면, 공공영역은 이질적인 가치들이 혼재하며, 서로 다른 의견들의 ‘사이(in-between)’에서 생성되는 공간이다. 공공 영역

1) 본고는,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교회의 공적 실천의 방법으로서 ‘대화’와 ‘참여’에 관한 연구”(장신대, 2016) 중 ‘Ⅲ. 교회의 공적 실천을 위한 신학적 관점 A. 교회의 공적 실천의 전제: ‘공적인 것’과 공적 실천’에서 발췌했다.

은 다양한 타자들을 어떤 신념이나 가치 지향에 따라 하나의 울타리 안에 묶지 않는다. 오히려 각자가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현시한다. 물론 단지 타인에게 자신을 드러내지만 하는 자리는 아니다. 특정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는 자신의 관심사와 의견을 교환하기도 한다.²⁾

공공영역은 공동체들의 '사이'에 있다. 그렇다면 공공영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발생한다. 첫 번째는, 공동체 성원들이 낯선 타자가 되어서 서로에게 자신을 현시하는 경우이다. 이때 각기 다른 성원들은 다른 공동체의 성원들에게 존재감을 드러내며 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공동체들 사이에서 낯선 부분들이 어느 정도 극복되고, 타자들과 공통의 관심사가 생기는 경우이다. 피할 수 없는 사건에 직면하게 되면, 공공영역은 사회문제에 대한 합의의 장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그렇다면, 다양한 타자들이 자신을 현시하는 다원주의 시대에 교회가 공적인 활동을 한다는 것을 두 경우로 풀어낼 수 있지 않을까? 첫 번째로 교회가 낯선 집단과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 보도록 그들에게 말을 걸고 교회의 독특한 실천을 공중에게 드러내 보이는 경우이다. '사이'의 공간에서 교회가 자신을 개방하고 타자에게 자신을 드러낼 때, 또한 타자에게서 어떤 피드백을 접수할 때에, 교회는 공적인 존재가 된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다른 집단과의 공통 사건에 연루된 경우이다. 이 경우, 서로 중첩된 '사이'에서 교회는 활기찬 논증과 토론의 주체가 될 수 있다.

3. 공동체의 존재방식

지금까지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공공영역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말했다면, 이제 공동체의 사적인 것, 즉 '공동체적인 것'이 어떻게 사회적이고 공적인 것으로 전화될 수 있는지를 말할 차례다. 사회학자 지그문트 바우만은, '코뮤니타스'(communitas)와 '소시에타스'(societas)라는 개념을 독특하게 해석함으로써 인간의 어떤 특정 집단이 공유할 수 있는 두 양식에 대해서 설명한다. 본디 '코뮤니타스'는 종교 공동체와도 같이 체계화할 수 없고, 느슨한 연대로 이루어진 집단을 말한다면, '소시에타스'는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체계화된 사회를 가리킨다. 바우만은 이 두 개념을 서로 다른 형태의 집합적 양식으로 보는 대신에, "인간의 두 가지 상보적인 공존 양식"으로 보며, 또한 개별 집단 안에도 이런 두 양식이 혼합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이 함께하는 방식은 다양하지만 어느 것도 완벽하게 구조화되지는 않으며, 어떠한 내부 분화도 모든 것을 아우를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고, 모호함으로부터 자유로우며, 어떠한 위계도 총체적이고 고착된 것일 수 없다...코뮤니타스는 좋은 나쁜 모든 소시에타스 구름의 안감이다. 만약 코뮤니타스가 없다면 그러한 구름은 사라질 것이다. 소시에타스는 이음매가 풀어지면서 흩어버릴 것이다.³⁾

2) Saito Junichi, *Publicness*, 윤대석, 류수연, 윤미란 역, 『민주적 공공성』(서울: 이음, 2009), 27-28.

3) Zygmunt Bauman, *Liquid Love: On the Frailty of Human Bonds*, 권태우, 조형준 역, 『리퀴드 러브-사랑하지 않을 권리』(서울: 새물결, 2013), 177.

소시에타스는 눈에 보이지만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도 같다. 사람들은 하늘에 떠 있는 것이 구름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나 구름은 한 지점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겉으로는 구조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명료하지 않은 것들과 석연치 않은 것들이 느슨하게 묶여 있다. 이렇게 가시적이긴 하나 고정되어 있지 않은 소시에타스의 안감이 커뮤니티다. 구름의 안감에 수많은 수증기가 모여 있듯, 수많은 커뮤니티가 꿰매어 있어 소시에타스를 이루지만, 이것은 보이지 않는다. 소시에타스라는 질서 지워진 거대한 덩어리의 속에는 무질서한 커뮤니티들로 가득하다. 바우만은 이 불확실한 커뮤니티의 생존과 변영이, “인간의 상상력과 발명심, 그리고 상투적인 일상성을 깨부수고 시도되지 않은 방법들을 시도해보려는 용기에 의존”한다고 단언한다. 4)

바우만의 이런 비유는 타인들에게 보이는 소시에타스라는 외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커뮤니티의 생존과 변영에 달려 있음을, 또한 커뮤니티의 생존이 새로운 상상과 새로운 시도에 달려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바우만의 말은 겉으로 드러난 외형을 이루는 힘이, 외형을 깨는 리스크를 감당하는, 커뮤니티들의 격렬한 에너지와 용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교회의 공적 존속도, 수많은 개별 공동체들의 외형을 깨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창발적인 움직임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닐까? 공적으로 드러난 실천이란, 어떤 의미에서 가장 공동체적이고 사적인 것들의 격렬한 대항적 실천들이 낳은 결과물이라는 것이다.

4. 교회의 공적 실천의 두 방향

그렇다면, 교회의 공적 실천을 어떻게 구체화할 수 있을까? 커뮤니티의 내적인 활력과 지속되는 생기, 또한 기존 질서에 대한 반발력, 창의적인 건설력 등이 커뮤니티를 존속시킬 뿐 아니라, 커뮤니티로 ‘안감을 댄’ 소시에타스를 지탱한다. 한국사회는, 한국교회를 포함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결사체들을 안감으로 덧대었기 때문에, 한국사회의 외형과 윤곽을 결정하는 것이 시민사회들의 에너지라고 한다면, 한국교회도 다수의 교단과 수많은 교회들과 또 그 안에서 생기 있게 활동하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공동체들을 안감으로 덧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교회의 향방이나 또 외형을 결정하는 것은, 무질서하게 보이고 또 느슨하게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와 공동체들의 상상력과 이를 구체화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교회는 본디 초월성에 기초한 공동체다.5) 창발적인 에너지와 저항력이 초월성에서

4) 위의 책, 178.

5) 교회의 실천은 신앙고백으로부터 시작한다. 교회는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전에, 지금 교회가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지금 교회는 누구를 믿고 있는가, 또 교회가 신앙하고 있는 분이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가를 먼저 묻는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지금 해야 할 일을 결정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두텁고 깊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뿌리박을수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차없이 신뢰할수록, 공적 참여의 범위가 넓어지고 집중도가 커진다는 말이다. 현실적인 여건이나 사회적 상황이 참여의 장애가 될 때에, 초월성에 대한 신앙고백이야말로 난관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된다. 탄탄한 이론이 학문적 실천을 지지하듯, 깊게 뿌리내린 하나님에 대한 공동체의 신앙은, 공적 실천을 지구력 있게, 또 더 확신 있게 할 수 있도록 견인한다. 강영룡, 위의 논문, 227쪽.

비롯된다는 말이다. 교회가 사회 통합에 일조하고 사회 문화 안에 심오한 도덕적 감수성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국 사회의 구성요소가 된 소시에타스로서 교회가 사회의 의미 자원이자 사회적 에토스의 공급처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한국교회 안에 속한 수많은 ‘코뮤니타스’의 활력에 기대를 걸어야 한다. 교회의 사회적 역할은 한국교회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수많은 공동체의 활력에 달려 있고, 이 활력은 교회를 교회되도록 하는 초월성에 교회가 얼마나 개방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 시대는 자기를 현시하는 다원사회다. 자기를 공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의 시대이자, 개별 공동체가 자기 진실성의 이상을 공적으로 추구하는 ‘진정성의 시대’다. 이런 시대에는 교회가 자기를 어떤 존재로 드러내는가,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가 타인에게 드러난다. 교회는 이제 더 이상 폐쇄적인 집단이나 고립된 집단이 될 수 없다. 교회는 초월성으로 개방해야 하지만, 내재적인 세계,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이미 타인들 앞에 공개되어 있다. 코뮤니타스의 초월적인 활력과 이로부터 생겨난 다양 다기한 반발력이 있어야 한국교회라는 외형을 다른 집단에게 현시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 제도와 규범에 발언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때 교회는 세속 사회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려 했으나 세속 사회의 다른 성원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때도 있었다. 세속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던 시대에 교회는개인의 사적인 신앙과 신념을 보존하는 곳으로 전락하기도 했었다. 반면, 우리 시대는 도덕적인 지향성을 잃어버린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결사체로서, 또한 사회 성원들의 윤리적인 감수성을 깨워낼 수 있는 공동체로서 전통 종교가 다시 소환되는 시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세속 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교회가 ‘사이’로서의 공공영역을 인식한 시대라는 말이다. 이런 내재성의 층위에서, 교회의 공적 역할이란, 사회의 공익과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가 공론장에서 세속의 다른 성원들과 대화하고 논증과정에 참여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말이다. 사회와 분리된 집단으로, 세상을 적대해야 할 집단이 아니라, 세상과 관심을 공유하고 당면한 과제에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을 반드시 정치권력을 추구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데 직접 참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교회는 사회 질서를 형성하는 문화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교회는 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문화 속의 공동의 삶의 주요 분야들을 해석해주고, 발전 가능한 시민 사회 형성과 지탱을 위한 윤리적인 가이드”를 제공할 수 있다. 도덕적이고 영적인 에토스를 형성하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사람들을 양육함으로써 시민 사회 안에서 새로운 시민 교양을 부여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일부 그리스도인 전문가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감시하게 하고, 소명의식을 지닌 전문가를 정치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현장으로 파송할 수 있다.⁶⁾

하지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사이라는 현시의 공간에서, 교회는 타인에게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현시한다. 제각각의 타인들에게 자신을 노출하고 있다는 말이다. 오늘날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나 공공영역의 다른 성원들도 종교의

6) Max L. Stackhouse, “공공신학이란 무엇인가,” 새세대교회윤리소 편, 『공공신학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39-40.

자기 현시를 강제적으로 막지 못한다. 물론 교회와 다른 공동체와의 ‘사이’ 공간을 교회가 스스로 폐기할 위험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사적으로 서구 교회는 무수한 적대와 배제의 언어를 구사하는 방식으로 ‘사이’를 접어왔다. 또한 지금도 문명사의 무수한 전쟁의 진원이었다는 부채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⁷⁾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교회가 권력의지를 드러낸다거나 폭력을 조장하게 되면, 이전처럼 기밀에 부쳐지지 않는다. 상대를 강제로 대했다가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망신을 당한다. 개인의 사생활이 공적으로 노출되는 우리 시대에, 교회의 비위나 폭력적인 행태와 위선을 감출 수 있다는 생각은 순진하기 그지없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이야기를 한 신념 공동체의 폐쇄적인 이야기로만 보는 것은 잘못이다. 하우어워스의 “교회의 윤리가 사회의 윤리다”라는 명제는 이런 의미에서 재해석할 수 있다. 교회의 윤리는 교인들의 삶을 통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드러나는 윤리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교회가 어떤 종교성을 추구하고 교회가 어떤 실천을 하는지를 주시한다. 영성과 표현의 시대에, 교회가 어떤 초월성에 잇대고 있는지, 또한 교회가 제안하는 경이로운 삶의 방식은 무엇인지에 사람들은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교회는 사회 성원들을 양육하고 이들에게 일관된 삶의 방식을 가르치는 학교다. 어떤 의미에서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대조모델이 되어서 새로운 공동체의 성원들을 길러내야 할 책임이 있다. 교회의 성원들이 자본과 권력의 논리에 함몰되지 않고, 세상에서 신앙의 긴장을 살아가게 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는 신앙고백에 기초해 하나의 정치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⁸⁾

교회가 세상과 형성한 ‘사이’라는 공간에서는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 교회는 정의의 견실한 토대를 제공해야 할 책임 때문에 공적 공간으로 소환되었으며, 사회적 에토스를 제공해야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동시에 교회는, 교회라는 범주 안에 속한 다양한 공동체 성원들과 함께 독특한 실천을 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드러낸다. 이 과정에서 교회는 고착된 사회 질서에 반발하기도 하고, 사회적 비전을 대체할 새로운 패러다임을 고안하기도 한다. 교회가 공적인 실천을 한다는 것은, 이렇게 사회 안에서 책임적인 역할과 대안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다른 공동체들과 의사소통하기도 하고, 자신의 독특한 지위와 실천을 그대로 드러내며 공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5. 에필로그

사회학자 바우만의 말처럼 오늘날은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식민지화 하는 시대

7)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향후 사회를 글로벌 위험사회로 진단하면서, 자기 대면적인 근본주의자들이 출현할 것으로 예측한다. 근본주의자들의 특징을 벡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 (1) 회의하지 않는 태도로 회귀하며, (2) 자기 종교의 확실성을 근거해 신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전체주의 태도를 보인다. (3) 자기 종교를 믿지 않는 불신자와 타 종교 신자들을 악마로 취급하고, (4) 초국적 연결망과 활동방식을 드러낸다. 이는 자칫 대립과 적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교회도 유념할 만하다. Ulrich Beck, *Der eigene gott : von der friedensfähigkeit und dem gewaltpotential der religionen*, 홍찬숙 역, 『자기만의 신』(길 출판사, 2013), 231.

8) 하우어워스는 기독교의 윤리가 사회를 더 선하고 정의롭게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있다기보다는, 일단은 고백과 확신, 증언의 공동체를 세움으로써, 사회 정책에 대해서 상상적 대안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교회의 목적이 사회에 에토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Stanley Hauerwas, *Community of Character*, 문시영 역, 『교회됨』(서울: 북코리아, 2010), 110-13.

다. 공적인 자리에서 공적 인물들의 사적인 이슈가 사적이지 않은 다른 문제들을 밀어내고 공적인 현안이 되어버린다. 가십거리에 그쳐야 할 공인의 사생활이 크게 부각되고 나면, 이 이슈는 전통적으로 공적인 것으로 인식되던 것들, 예컨대, 실업이나 빈곤 혹은 복지 수당 같은 사회적인 이슈들을 모두 삼켜 버린다. 한국교회도 상황이 비슷하다.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늘 거론되는 것이 목회자의 사생활과 윤리다.

그만큼 우리 시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경계가 희미해진 시대다. 교회의 사적인 것들이 공적 공간에서 공중들에게 송신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활동과 개교회가 추구하는 가치가 공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모든 실천은 종교적 실천이자 공적인 실천이 될 수 있다. 탈종교 시대에는 문화 선교, 지역 사회를 위한 섬김 뿐 아니라 사회 성원들의 영적인 갈증을 채워주는 활동도 공적인 관심을 살 수 있으며, 교회가 사회 성원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활동이 될 수 있다는 말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교회의 실천을 사적인 것이라 폄하할 수 없다.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자신의 존재를 타자에게 현시함으로써 언제든지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공적인 자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에 교회만의 독특한 활동은 잠정적인 의미에서 공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적인 것'으로 치부되던 교회의 실천이 사회적 의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교회는 이제 교회라는 범주 안에 포함된 수많은 공동체들의 격렬하고 창의적인 실천을 장려해야 한다. 공동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공동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지역 사회의 복지와 공동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문화 사업이나 복지 사업 뿐 아니라, 개인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줄 수 있는 활동들, 예컨대 도시 주민들을 위한 피정이나 성서학당, 치유 집회도 필요하다. 교회 공동체는 사회 성원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홀로 존립하는 개인으로 설 수 없다는 사회적 영성을 구현하는 장이 되어야 할 뿐 아니라, 보이는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연결하는 초월성의 창도 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의 모든 활동들을 용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탈종교화 시대에 교회의 실천이 사회 안에서 의미 있게 현시되기 위해서 교회는 진정성, 관계성,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 교회의 진정성이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으로서 공동체 성원들의 내면만을 집중하는 데 있지 않다. 오히려 교회의 과거와 현재가 들어 있고, 사회와 자연 우주로 연결되어 있으며, 앞으로 다가오는 시간에 개방하는 데 있다. 관계성을 지닌다는 것은 교회가 자족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개방적이고 관계적인 구조를 지향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이해의 지평을 개방하고 낮은 타자를 대화의 파트너로 규정해야 하며, 당장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공통의 지평을 넓혀가며, 참여와 실천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책임적인 실천을 해야 한다. 교회가 타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타자의 평가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도 된다. 나도 남을 평가하지만 남도 나를 평가한다. 탈종교화 시대와도 같이 다양한 문화와 세계관들이 각축하는 시대에는, 상이한 신념 공동체들 간에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물론 교회의 공적 책임감이란 집단 내부의 신념과 가치에서 온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에 노출된 다원사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사회적 책임성이 요청된다는 말이기도 하다.⁹⁾

“코뮤니타스는 좋은 나쁜 모든 소시에타스 구름의 안감이다. 만약 코뮤니타스가 없다면 그러한 구름은 사라질 것이다. 소시에타스는 이음매가 풀어지면서 흩어버릴 것이다.”

작은 교회 공동체의 다양 다기한 움직임이 교회라는 외연을 형성한다. 그러기에 교회는 창의적인, 격렬한 움직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음매가 필요하다. 작은 교회 공동체는 진정성, 관계성, 책임성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각기 다른 교회 공동체가 서로를 인정하게 하고 서로를 엮어주는 이음매다. 이 이음매가 풀어지면 탈종교화시대에 교회는 풀어지고 흩어지고 말 것이다.

9) 필자는 학위논문 “교회의 공적 실천의 방법으로서 ‘대화’와 ‘참여’에 관한 연구”에서 교회의 공적 실천의 방향으로 “진정성, 관계성, 책임성”이라는 세 가지 요소를 아래와 같이 신학적으로 재해석했으며 이에 적합한 하나의 실험적인 모델로 “참여의 진지전”을 제안한 바 있다. 1) 진정성: 인간의 변영과 하나님에 대한 초월적 신앙 2) 관계성: 사랑의 원리와 포용의 드라마 3) 책임성: 소극적 책임과 적극적 책임

2017년 문화선교연구원 문화포럼 1차

탈종교시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하나

종합토론

사회 : 백광훈 원장(문화선교연구원)



MEMO

2017년 문화선교연구원 문화포럼 1차

탈종교시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하나

질의응답

사회 : 백광훈 원장(문화선교연구원)



질문지 Question

◎ 질문을 적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질문지 Question

◎ 질문을 적어서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탈종교시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하나

부록 1

-탈종교 시대 관련 기사-

참고자료 <탈종교 시대 관련 스크랩>

- 개신교 인구, 불교 제치고 종교 인구 1위 올라(노컷뉴스, 2016.12.19.)
 - 2030세대 '탈종교 현상' 종교인구 감소 위기(기독교타임즈, 2015.01.30.)
 - “종교인구 감소 ‘탈종교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뉴스엔넷, 2017.01.26.)
 - 2030세대 탈종교 현상으로 종교인 점차 줄어(시대정신, 2016.01.02.)
 - 미국인들도 ‘탈종교’ 750만 명 떠났다(LA중앙일보, 2015.03.18.)
 - ‘도깨비 신드롬’과 21세기 인간의 염원(백소영, 문화선교연구원, 2017.02.15.)
 - 에코세대의 교회이탈요인 설문조사 결과
(한국지도자센터, 제9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울림세대 일어나서 함께가자”)
-

개신교 인구, 불교 제치고 종교 인구 1위 올라¹⁾

통계청이 19일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

◇ 최초로 인구 절반 넘어선 무교 인구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인구 4,905만 2천 명 가운데, "종교가 있다"고 답한 인구는 2,155만 4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3.9%를 차지했다.



"종교가 없다"고 답한 무교 인구는 2005년 47.1%에서 2015년 56.1%로 통계청이 종교 조사를 시작한 1985년 이후 처음으로 인구 절반을 넘어섰다.

특히 40대가 13.3%p로 가장 크게 감소했으며, 20대(12.8%p)와 10대(12.5%p)가 그 뒤를 이었다. 종교가 있는 인구 비율은 20대에서 35.1%로 가장 낮고, 이후 연령이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여 70대에는 58.2%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원 통계청 인구총조사과장은 "최근 사회 구조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종교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결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1) 이빛나, "개신교 인구, 불교 제치고 종교 인구 1위 올라," CBS 노컷뉴스, 2016.12.19., <http://www.nocutnews.co.kr/news/4703996#csidx34bb2a1166d4c54b19337fb19dcbfbd>



◇ 개신교 인구가 종교 인구 1위

무교 인구의 비중이 커지는 가운데, 10년간 개신교 인구만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2015년 개신교 인구는 총 967만 6천 명으로 761만 9천 명인 불교와 389만 명인 천주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개신교 인구가 국내 종교 인구 중 1위로 올라선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시행 이래 처음이며, 이전 조사인 2005년에는 불교가 개신교보다 214만 2천명 가량 많았다.

불교는 천만 명이 넘었던 2005년 대비 7.3%p 감소한 761만 9천 명으로, 천주교는 2005년 501만 5천 명에서 2.9%p 감소한 389만 명으로 집계됐다.

그동안 감소세로 알려지던 개신교의 약진과 증가세로 알려지던 천주교의 부진에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들까지 모두 개신교에 포함시킨

것을 개신교 인구 증가의 요인으로 꼽고 있다.

◇ 개신교는 서쪽, 불교는 동쪽에서 강세

개신교 인구 비율은 특히 서쪽지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개신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북으로 전체 인구의 26.9%를 차지했으며, 서울(24.2%)과 전남(23.2%)이 그 뒤를 이었다. 강원(17.5%)은 최하위를 기록했다.



반면 불교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은 울산(29.8%), 경남(29.4%), 부산(28.5%) 순이었으며, 개신교와는 반대로 경상도 등의 동쪽지역에서 높은 인구 비율을 보였다.

한편 이번 인구 조사는 전국 20% 표본 가구에 조사원 면접 및 인터넷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종교 관련 조사는 10년에 한 번씩 발표된다.

2030세대 '탈종교 현상' 종교인구 감소 위기²⁾

한국 갤럽, '한국인 종교실태' 발표 ... 20대 종교인구 31% 불과
종교인·비종교인 비율 반반 ... 종교분포는 불교·개신교 비슷
개신교인 참여도 높은 반면 비종교인 대상 호감도 '꼴찌' 충격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들에게 개신교가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 호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회장 박무익, 이하 갤럽)이 지난 28일 발표한 '한국인의 종교

2) 김준섭, "2030세대 '탈종교 현상' 종교인구 감소 위기," 기독교타임즈, 2015.01.30.,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9559>

1984-2014 종교 실태'에 따르면 비종교인(742명)에게 가장 호감을 느끼는 종교를 묻은 결과 불교 25%, 천주교 18%, 개신교 10%순이었으며 절반에 가까운 46%는 '호감 가는 종교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개신교는 전 연령대에서 10%정도로 고른 분포를 보였으나 타종교에 비해서는 호감도가 떨어진 수치이다.

2004년 역시 비종교인들은 불교(37%), 천주교(17%), 개신교(12%) 순으로 호감가는 종교에 대해 응답했으며 33%는 '호감가는 종교가 없다'고 대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를 2014년과 비교해봤을 때 개신교는 오히려 2% 떨어진 수치이다. 10년동안 한국교회가 변화와 신뢰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음을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양적인 교회성장에만 집중하고, 분열된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이런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표1>

	불교		개신교		천주교		없다	
	'04	'14	'04	'14	'04	'14	'04	'14
19~29세	34	18	11	12	18	17	36	52
30대	37	23	11	7	19	23	33	47
40대	43	30	17	12	17	18	23	40
50대	39	28	11	11	13	17	36	43
60세 이상		31		10		10		48

*1984~2004년의 50대는 50세 이상을 의미. 2014년부터 50대와 60세 이상을 별도 구분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p.30-31. 한국갤럽

비종교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45%는 '관심이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그 다음으로는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19%) △정신적·시간적 여유가 없어서(18%) △내 자신을 믿기 때문(15%) 순으로 조사됐다.

'관심이 없어서' 종교를 믿지 않는다는 응답은 1997 26%, 2004년 37%, 2014년 45%로 매년 늘어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 55%, 30-50대 40% 선, 60세 이상은 36%로 과거에 비해, 저연령일수록 종교에 더 무관심한 것으로 나타났다.<표2>

문)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귀하께서 현재 종교를 믿지 않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표 48)

	1997년	2004년	2014년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으로	23	14	19
내 자신을 믿기 때문에	10	18	15
정신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9	21	18
관심이 없어서	26	37	45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반대로	4	2	1
용기가 없고 마음에 부담이 되어서	4	2	2
기타/모름/응답거절	14	6	0

*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29. 한국갤럽

2014년 종교 유무를 믿는 질문에 50%는 ‘믿는다’, 50%는 ‘믿지 않는다’라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를 믿는 사람의 경우 남성(44%)보다는 여성(57%)이 더 많았으며 고령일수록 많았다.

종교인 비율은 1984년 44%, 1989년 49%, 1997년 47%, 2004년 54%로 지속적으로 늘어났으나 2014년에는 50%로 줄었다.<표3>

◎ 한국의 종교 인구 변화 1984-2014



◎ 연령별 종교인 비율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19~29세	36	39	36	45	31
30대	45	46	47	49	38
40대	49	54	53	57	51
50대	53	58	56	62	60
60세 이상					68

* 19~29세의 1984~2004년 수치는 18~24세, 25~29세 조사 결과의 평균

* 1984~2004년의 50대는 50세 이상을 의미, 2014년부터 60세 이상 별도 구분

조사를 담당한 갤럽은 종교인 비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청년층, 즉 2030세대의 탈(脫)종교현상’을 꼽았다. 갤럽은 “10년 전 20대는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현재 30대는 38%로 7% 하락했으며, 20대 중 종교인은 31%에 불과하다”면서 “이러한 청년층의 이탈현상은 종교인구의 고령화, 더 나아가 장기적인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결과는 △기독교 인구의 심각한 감소현상 △교회학교 위기 등 그동안 끊임없이 한국교회 위기 원인으로 제기됐던 문제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국교회가 교회학교와 청년 층 등 다음세대를 세우는 일에 더욱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한국인의 종교 분포는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개신교는 불교와 비슷한 비중을 보였다. 특히 개신교는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나타났으나 50대와 60세 이상이 다소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 30년간 개신교인은 1980년 17%에서 1990년대 20%까지 달한 이후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간의 종교 일치율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의 경우 지난 1984년 이후 부친 일치율과 모친 일치율이 각각 27% → 47%, 43% → 56%로 늘었으며 배우자의 경우에는 73%로 동일한 수치를 기록했다. 갤럽 측은 ‘가족간의 종교 일치율 조사’ 결과에 대해 “부모가 특정 종교를 믿는 경우 자녀도 해당 종교를 믿는 경향이 있고 그 자녀 역시 성인이 됐을 때 같은 종교를 믿는 배우자를 찾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현재는 불교인의 가족 구성원 종교 일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불교인 다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에서 향후 가족 구성원을 통한 종교 인구 확장은 전 연령층에 고르게 분포한 개신교 쪽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생활에 종교가 중요하냐는 질문에는 ‘(매우+어느 정도) 중요하다’ 52%, ‘(별로+전혀) 중요하지 않다’ 48%로 양분된 것으로 조사됐다. 종교별로는 개신교(90%), 천주교(81%), 불교(59%), 비종교인(30%)순이었다. 지난 30년간의 조사 결과와 대조해 봤을 때는 종교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는 약해지고 있지만 개신교의 경우에는 여전히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주교인(1984년 97%, 2014년 81%) △불교인(1984년 88%, 2014년 59%) △비종교인(1984년 48%, 2014년 30%)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컸다.

주1회 이상 종교 의례 참여율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은 80%, 천주교인은 59%가 ‘일주일에 1번 이상’ 교회나 성당을 가는 반면 불교인은 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년간의 조사결과에서도 개신교인의 종교 의례 참여율은 62%(1984년) → 80%(2014년)로 늘어났다.<표4>

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

귀하는 요즘 성당, 교회, 절 등에 얼마나 자주 가십니까?

단,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일로 방문하신 것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십시오. (% , 표 33)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일주일에 1번 이상	39	41	42	36	44
한 달에 2~3번	8	7	6	11	10
한 달에 1번	13	8	9	11	8
두세 달에 1번	(31) 10	(24) 9	(22) 7	(32) 10	(28) 10
일 년에 1~2번 이하	23	26	27	28	26
전혀 가지 않는다	-	9	9	5	2
모름/응답거절	8	1	-	-	-

◎ 종교별 종교 의례 참여율: '일주일에 1번 이상 성당/교회/절에 간다'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불교인	10	4	1	4	6
개신교인	62	73	72	71	80
천주교인	66	66	60	43	59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p.43-44. 한국갤럽

종교적 헌납 즉, 개신교의 경우 십일조 여부를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들은 68%가 십일조를 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 1984년 42%에서 무려 26%가 늘어난 수치이다. 갤럽 측은 “불교인의 종교 의례 참여나 시주는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연례 행사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개신교인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분석했다.<표5>

◎ 기독교인(개신교인과 천주교인)의 십일조 이행률 (%)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개신교인	42	41	58	46	68
천주교인	26	29	32	15	36

질문) (천주교나 개신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귀하는 요즘 십일조를 하고 계십니까?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p.49, 표 42. 한국갤럽

종교를 믿는 시기에 대한 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개신교의 경우는 9세 이하가 31%, 10대 15%, 20대 17%, 30대 19%, 40대 13%, 50세 이상 5%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를 믿은 기간을 묻는 질문에 개신교인을 비롯해 불교인, 천주교인 모두 지난 30년 간에 비해 20년 이상 장기 신앙자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신교인의 경우 장기 신앙자(20년 이상)가 44%(1984년)에서 64%(2014년)로 증가한 반면 5년 미만의 단기신앙자의 경우는 25%(1984년)에서 6%(2014년)로 줄어들었다. 이 조사결과는 한국교회가 과거에 비해 '전도'에 소홀히 했거나 전도를 했어도 '새신자 정착율'에 그리 큰 관심을 쏟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갤럽 측은 “신앙 시기, 즉 종교를 믿기 시작한 연령이 높아지고 장기 신앙자 비중이 늘어난 것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도 무관치 않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17일부터 5월 2일 3주간 전국(제주 제외)의 만 19세 이상 150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원의 인터뷰로 진행됐다. 갤럽 측은 이번 조사 결과를 기록한 ‘한국인의 종교 1984-2014’ 단행본을 2월 중순부터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교인구 감소 ‘탈종교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³⁾

‘2015 인구센서스 종교인구조사결과 3대종교 특별토론회’ 열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종교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대체로 세속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탈종교 현상으로 진단되고 있는 듯합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번 조사결과에서 그것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특이한 점들이 보입니다.”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의 연구자들이 ‘2015 인구센서스 종교인구조사 결과’ 나타난 종교인구 변화, 엄밀히 말하면 종교인구 감소의 뜻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3시대그리스도교연구소, 신대승네트워크, 우리신학연구소 공동 주최로 2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월드컬처오픈 W스튜디오 안국에서 진행된 ‘2015 인구센서스 종교인구조사 결과 3대 종교 특별토론회’에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종교인구의 급격한 변동(감소)이 대체로 세속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탈종교 현상으로만 진단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국종교가 ‘탈종교 시대’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한국적 사회상황이 종교적 욕구를 증대시키고 있는데도 종교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탈종교를 넘어서는 또 다른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 기초발제를 맡은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현재 종교인구의 감소는 탈종교라는 종교의 위기만 아니라 그들의 종교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했던 기성 제도종교의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이사는 “헬조선 시대 암울한 미래와 과도한 경쟁 그리고 모든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탓에 개인의 불안과 강박관념이 증대해 우리사회 종교적 욕구를 증대시킬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런 종교적 욕구를 가진 개인들은 자신의 종교적 피난처를 찾아 적극적으로 나섰

3) 이병왕, ““종교인구 감소 ‘탈종교 현상’으로만 볼 수 없다.” 뉴스앤넷, 2017.01.26., <http://www.news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4650>

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이사는 “현재 종교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보면, 한국종교들은 그들의 피난처를 효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일 이들에게 희망과 피난처를 적절히 제시했다면 이같은 종교인구 감소는 없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렇게 본다면 윤 이사는 “작금의 종교인구의 감소는 종교의식의 세속화나 서구적 탈종교 현상보다도, 한국사회의 불안과 생존위기로 야기돼 증대된 종교적 욕구를 수용할 수 없었던 기성 제도종교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진호 제3시대그리스도연구소 연구실장 역시 ‘종교성이 만연한 시대에 종교인구의 감소라는 결과로 나타났다’는 말로 윤 이사의 이러한 분석과 주장에 동의를 표했다.

김 연구실장은 “오늘의 세계는 곳곳에서 ‘더 종교적’이다. 즉 전통적 종교체제들이 대표했던 종교의 영토를 넘어서 모든 존재의 장소가 종교 혹은 ‘종교적인 것’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데 김 연구실장은 “문제는 기성의 종교들은 그러한 종교 너머의 종교성에 대해 닫혀 있다는 사실”이라면서 “한국사회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신자유주의의 폭력적 횡포가 사람들의 삶 전체를 옥죄고 있고, 거기서 벗어날 계산 가능한 미래가 무망한 현실에 갇혀 버린 상황에서, 많은 이들이 몸과 마음의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그러한 질병에서 벗어나려는 종교적 갈망에 매달리고 있지만, 기존의 주류 종교들은 그러한 사람들의 고통과 질병에 무감각한 탓에 아무런 답도 주지 못하는 탓에 종교인구가 줄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연구실장은 “종교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삶과 연루돼야 한다”면서 오늘날 한국사회처럼 종교가 만연한 상황 하에서는 종교가 이러한 연결점을 신앙 속에 담아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계산책] 2030세대 탈종교 현상으로 종교인 점차 줄어4)

한국의 종교인구 ‘무신론자’ 비율 높아지고 ‘고령화’ 추세

한국인의 절반 정도가 종교인이지만, 2030세대의 탈(脫)종교 현상이 심화되며 종교인 숫자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이 2014년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현재 종교를 믿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종교를 믿고 있다’(종교인)는 응답이 50%를 차지했다. 갤럽은 1984년, 1989년, 1997년, 2004년, 2014년 각각 한국인의 종교 실태를 묻는 내용의 조사를 진행해 올해 초 ‘한국인의

4) “[통계산책] 2030세대 탈종교 현상으로 종교인 점차 줄어,” 격월간 시대정신 2016년 1/2월호, <http://www.sdjs.co.kr/read.php?quarterId=SD201601&num=889>

종교'란 단행본을 펴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종교인 비율은 1984년(44%)에 비하면 30년간 6%p 증가했지만, 2004년 4차 조사(54%)에 비하면 4%p 줄어들었다.

성별로 봤을 때 여성(57%)이 남성(44%)보다 종교를 믿는 비율이 더 높았다. 그러나 2004년 조사에 비해 여성의 종교인 비율은 6%p 감소한 반면 남성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종교인 비율은 20대 31%, 30대 38%, 40대 51%, 50대 60%, 60세 이상 68%로 고연령 일수록 높았다. 특징이라고 하면 2004년에 비해 젊은 세대의 종교인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점이다. 20대 종교인 비율은 2004년 45%에서 2014년 31%로 14%p 줄었고, 30대도 49%에서 38%로 11%p나 감소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 63%, 고졸 54%, 대재 이상 41%로 학력이 높을수록 종교인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 종교인 비율은 보수층 58%, 중도층 50%, 진보층 39%로 보수적일수록 높았다. 한국갤럽은 조사 결과에 대해 “2004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종교인 비율이 줄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청년층의 종교인 비율이 두드러지게 감소한 데 있다”며 “2030세대의 탈(脫)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 더 나아가 장기적인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현재 한국인의 종교 분포는 불교 22%, 개신교 21%, 천주교 7%로 불교와 개신교가 비슷한 비중을 보이고 있다고 갤럽은 밝혔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불교인은 2%p 감소했고, 개신교와 천주교인 비율은 거의 변화가 없다. 갤럽은 이상의 결과에 근거해 2014년 현재 종교 인구 지형은 불교의 감소, 개신교와 천주교의 정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교’에 대한 신뢰도 11.8%에 불과

이 밖에도 미국의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종교인 현황에 대해 아무 종교가 없는 무교(46%), 기독교(29%), 불교(23%) 순으로 구분된다고 발표했다. 또한 1900년에 1%에 불과했던 기독교(개신교, 가톨릭 포함)가 지금은 29%로 성장했으며, 1980년대부터 개신교는 정체상태였지만 가톨릭 신자는 5%에서 11%로 성장했다고 밝혔다.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의 29%가 기독교인이지만 미국에 사는 교포들은 71%가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다른 아시아 나라에 비해서 종교적 제약이 거의 없으며 미국보다도 자유로운 종교생활이 허락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교’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지난 10월 만 16세 이상 국민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사회 및 사회기관 중 종교계에 대한 신뢰도는 11.8%로 집계됐다. 이는 25.0%를 기록했던 작년에 비해 대폭 하락한 수치이며 의료계(21.9%), 시민단체(21.5%), 금융기관(20.5%) 등의 기관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최저치를 기록한 국회·정당(3.1%)보다는 높게 조사됐다.

종교계를 3대 종교별로 나눠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천주교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을 한 비율이 39.8%로 가장 높았다. 불교는 32.8%, 개신교는 10.2%였다. 종교계 종사자에 대한 신뢰도 역시 신부가 51.3%로 가장 높았고, 스님은 38.7%, 목사는 17%였다. 반면 종교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는 ‘증가했다’는 응답이 40.4%를 기록해 ‘감소했다’(19.4%)보다 많았다. 종교별로는 개신교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는 응답률이 42.3%로 가장 높았다. 천주교는 36.3%, 불교는 26.7%였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종교인의 비율이 높은 미국의 경우도 최근 탈종교 현상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경우 종교 박해를 피해 온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인 만큼 기독교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 퓨리서치센터가 지난해 미국 성인 3만5,071명을 대상으로 전화인터뷰를 해 발표한 ‘미국의 종교적 지형 변화’에 따르면 미국인의 70.6%가 자신을 기독교인(개신교, 가톨릭 등)이라고 답했는데, 이는 2007년 조사(78.4%)와 비교하면 무려 7.8%p가 감소한 것이다. 반면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를 포함해 본인을 ‘무종교인’이라고 답한 사람은 22.8%였다. 7년 전(16.1%)과 비교하면 6.7%p나 증가한 수치다.

세계적으로 ‘탈종교’ 흐름…한국도 ‘무신론자’ 비율 높아

미국 역시 2030 세대가 탈종교 현상을 이끌고 있었다. 퓨리서치센터가 밀레니엄세대(1981~1996년생)의 흐름을 따로 분석한 결과 37%만이 개신교인이었고, 무종교인이라고 답한 비율도 35%에 달해 개신교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개신교인의 평균 나이는 50세로 2007년(47세)보다 평균 연령이 3세가 늘었다. 대신 무종교인 그룹의 평균 나이는 36세로, 2007년(38세)에 비해 젊어지고 있다. 미국 내에서 가장 젊은 종교는 무슬림으로 평균 연령이 33세다.

탈종교 현상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파악되고 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윈/갤럽 인터내셔널이 2012년 40개국 5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스스로가 종교적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글로벌 종교 및 무신론 지수’를 발표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한 응답자는 9%p 가량 줄었으며, 무신론자라고 답한 응답자는 3%p 가량 늘었다. 이 조사에서 “예배 참석 여부를 떠나 당신은 종교적인 사람입니까? 종교적이지 않은 사람입니까? 확실한 무신론자입니까?”라는 질문에 전 세계 응답자의 59%가 종교적이라고 답했으며, 23%가 종교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13%는 자신이 확실한 무신론자라고 응답했다.

중국인은 10명 중 9명이 종교가 없거나 무신론자라고 생각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비종교적인 국가’로 뽑혔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다양한 종교 전통을 갖고 있지만 공산당 집권 이후 사회주의 문화 때문에 무신론이 급격히 퍼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본 역시 무신론자의 비율이 높았다. 일본의 경우 응답자의 31%가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했다. 무신론자들의 인구비율이 높은 나라는 체코, 프랑스, 한국, 독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아이슬란드 순이었다.

한국인은 49%가 '종교가 없다'고 답했고 '확고한 무신론자'라고 밝힌 사람이 6%여서 전체 국가 중 12위를 차지했다. 미국은 종교 인구가 73%에서 60%로 감소하고 무신론 인구가 1%에서 5%로 증가했다. 이슬람 국가이자 무신론을 죄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인구의 5% 가량이 자신은 무신론자라고 답했다.

2005년 이후 종교적 성향이 현저하게 줄어든 상위 10개국에는 베트남, 아일랜드, 스위스, 프랑스, 남아프리카, 아이슬란드, 에콰도르, 미국, 캐나다, 호주가 포함됐다. 미국의 경우 2005년에는 응답자의 73% 가량이 자신이 종교적이라고 답했으나, 2012년에는 13% 줄어든 60%가 그같이 답했다. 반면 종교적 성향이 증가한 상위 10개국에는 가나, 나이지리아, 아르메니아, 피지, 마케도니아, 로마, 이라크, 케냐, 페루, 브라질 등이 속했다.

갤럽 측은 "세계적으로 개인이 번영할수록, 종교적인 성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결과는 혼재돼 있는 반면, 국가 내 개인적인 응답자들은 일정한 형태를 보였다. 57개국 시민들을 각국 내에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그룹부터 상대적으로 부유한 그룹까지 5개 그룹으로 묶을 경우, 부유한 그룹일수록 스스로가 덜 종교적이라고 정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갤럽은 종교계의 잇단 스캔들과 경제성장에 따른 물질적 풍요가 종교인 감소의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가장 종교적인 국가는 가나로 96%가 '신앙심이 깊다'고 답했다. 이어 나이지리아(93%), 피지·아르메니아(92%), 마케도니아(9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대륙별로는 아프리카가 가장 종교적이다. 응답자의 89%가 신앙심이 깊다고 답해 1위에 올랐고, 이어 라틴아메리카(84%), 남아시아(83%), 아랍(77%), 동유럽(66%), 북아메리카(57%), 서유럽(51%), 동아시아(39%), 북아시아(17%)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종교에 대한 항목이 포함된 통계청의 가장 최근 조사인 '2005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4,700만 명 가운데 종교를 갖고 있는 국민은 전체의 53.1%인 2,497만 명이었다. 종교별로는 불교(22.8%), 개신교(18.3%), 천주교(10.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1995년 조사와 비교해 '천주교 약진, 불교 정체, 개신교 쇠퇴'로 요약된 결과를 보였다. 이 수치는 앞서 한국갤럽의 조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전체 기독교인 규모는 비슷하나 천주교인 숫자가 더 많이 통계에 잡혔다.

갤럽의 조사는 2005년 당시 통계청 조사 결과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올해 진행된 '2015 인구주택 총조사'에서도 종교인의 비율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인구주택 총조사'는 5년 주기로 이뤄지지만 종교에 대한 조사는 10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그 결과는 내년 9월 쯤 나올 예정이다. 또한 한국갤럽은 조사 결과 파악된 절대 다수는 정체성이 분명한 불교, 개신교, 천주교에 속하고 있고,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인 등 신종교인은 거의 집계되지 않는다며 통계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통계청 조사는 불교, 기독교(개신교), 기독교(천주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대순진리회, 대종교, 기타를 조사 항목으로 포함해 보다 세

분화 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미국인들도 '탈 종교' 750만명 떠났다⁵⁾

전체 인구 중 23%가 무종교인...종교 활동도 점점 줄어

미국인들이 종교를 떠난다. 12일 제네럴소셜서베이(이하 GSS)에 따르면 미국 내 '무종교인'은 전체 인구 중 23%(2014년)로 나타났다. 이는 2012년(20%)에 비해 3%가 증가했다.

GSS는 보고서를 통해 "무종교인 1% 증가는 250만 명이 종교적 신념을 버렸다는 것을 뜻한다"며 "3년간 무종교인이 3% 늘어난 것은 750만 명이 종교를 이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탈종교 현상은 심각하다. GSS측은 "1990년대 미국 내 무종교인 비율은 10% 미만이었으나 2000년 들어 15%로 급증했다"며 "이러한 추세라면 30~40년 후에는 미국에서 무종교 그룹이 가장 큰 집단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종교 활동도 줄었다. '한 달에 한번 종교 활동을 한다'고 답한 미국인은 절반(43%)이 안됐다. 1983년(53%)과 비교하면 10% 감소한 수치다.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배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미국인도 35%였다.

전문가들은 탈종교적 흐름은 종교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진다고 우려했다.

미국에서 '종교 없음'이라는 책을 발간해 주목받고 있는 제임스 에머리 화이트 목사는 "심각한 건 종교를 떠나면 종교 활동만 멈추는 게 아니라, 아예 종교 자체를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종교를 반대하는 것조차 관심을 두지 않는다"며 "철저한 무관심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종교계는 앞으로 이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종교를 떠나는 것은 신념의 유기를 넘어, 점점 개인화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다.

데이브 로(43·아버인) 목사는 "종교는 삶의 본질적인 목적을 찾는 과정이자 신념의 체계인데, 종교를 떠난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개인 중심적'으로 변하는 것"이라며 "종교를 통해 규정화된 법칙이나 기준을 따르기보다 '나'를 중심으로 모든 판단과 정보의 수용이 이뤄지기 때문에 종교는 갈수록 무의미해진다"고 전했다.

한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지난 1월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의 절반(50%)은 종교가 없는 '비종교인'이었다.

5) 장열, "미국인들도 '탈종교' 750만명 떠났다," LA중앙일보 미주판 6면, 2015.03.18., http://www.koreadaily.com/news/read.asp?art_id=3241578

‘도깨비 신드롬’과 21세기 인간의 염원⁶⁾

“저는 아예 보지 않았어요. 경건한 신자가 어떻게 <도깨비> 같은 드라마를 시청하죠?”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한 권사님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정색을 하고 말씀하셨다. 도깨비니 저승사자니 삼신할머니에 칠성신까지, 이런 ‘잡신들’이 등장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말씀이었다. 이것이 과연 불신앙이냐 아니냐는 본 글의 논점이 아니다. 다만 웬만한 내러티브로는 시청자들을 TV 앞으로 모으지 못한다는 요즘 시국에, 온 국민을 ‘도깨비 열풍’으로 이끈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 현상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나는 도깨비를 열심히 봤다. 전공상 문화콘텐츠를 가까이 해야 하는 까닭도 있지만, 한 신앙지에 연재하는 글쓰기를 위해서 숙제처럼 선택한 드라마였다. 그런데 첫 회부터 신학자인 나에게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 대사가 있었다.

“네 백성의 마음이 너를 살리는구나. 너에겐 적이었으나 그 또한 생명. 어느 죽음도 잊히지 않으리라. 내가 네게 내리는 상이자 너의 별이다. 검을 뽑으면 무로 돌아가 평안하리라.”

드라마 안에서는 ‘칠성신’이라고 불리는 신적 존재가 불멸의 삶을 살게 된 도깨비 ‘김신’에게 한 말이다. 생명의 무게는 같고 어느 죽음도 정당화될 수 없으니 대가를 치르라는 말이 묵직하게 남았다.

불교적 세계관이니 샤머니즘적 신앙이니 말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어느 한 개별종교만을 콕 집기는 어려운, 상당히 ‘잡스런’ 신관이다. 동양적 종교심을 배경에 깔 드라마라는 것이 더 정확한 평가일 것이다.

“난 언제나 그대와 함께였다.”

“운명은 신이 던지는 질문이다. 답은 그대들이 직접 찾아라.”

까불이 재벌 3세 ‘덕화’에게 빙의한 칠성신의 이 깊은 대사에 잠시 ‘도깨비에 나타난 신관’을 목상해볼 유혹도 없지 않았으나, 적어도 신관이나 종교적 세계관에 있어서 이 드라마는 숙성되고 체계적인 사상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드라마 작가에게 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다. 판타지로 즐기자고 만든 드라마 내용을 신학자가 죽자고 달려들어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은 불공평한 일이다. 그러나 포스트휴먼이니 제4차 산업혁명이니 하는 말들이 회자되는 최첨단 과학 문명의 한복판에서 난데없이 부는 ‘도깨비 열풍’과 신적(神的) 개입에의 열

6) 백소영, “‘도깨비 신드롬’과 21세기 인간의 염원,” 문화선교연구원, <http://www.cricum.org/1129>

망은 그냥 스쳐 지나가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 보인다.

내가 포착한 첫 번째 메시지는 ‘다시’라는 재기의 기회에 대한 열망이다. 끊임없이 걸러지고 한 번의 탈락은 영원한 아웃인 무한경쟁의 후기근대 사회에서, 이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며 치열하고 피곤하게 사는데, 어머니 드라마 속 저 세상에서는 무려 네 번의 ‘환생’이 가능하지 않나. ‘저승이’(저승사자의 애칭)와 ‘김선’(고려시대 왕비이자 도깨비의 여동생)이 안타까운 이별에도 불구하고 ‘해피엔딩’을 맞을 수 있었던 장치가 바로 ‘환생’이었다. 최종회를 앞두고 여주인공(은탁)이 죽는 참담함에도, 도깨비와 그의 신부가 단풍국에서 낭만스럽게 재회를 할 수 있었던 것 역시 ‘환생’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번 생은 망했어.”

청년들 사이에서 하나의 유행어처럼 회자되는 이 표현은 사실 진지하게 생각하면 기독교인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표현이다.

“나는 아무래도 임진왜란 때 적에게 성문을 열어준 거 같아.”

“재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봐.”

지금의 삶이 ‘노오오오~력’에도 불구하고 잘 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혹은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또래가 땀 흘리지 않고 누리는 호혜에 대해서, ‘전생의 업보’를 탓하며 자조하는 말들이다. 하지만 솔직히 드라마 도깨비에 열광하는 이성적인 현대인들 중에서 어느 누가 진지하게 ‘전생’이나 ‘후생’을 믿을까? 그저 현실의 치열함을 잠시나마 잊을 만큼 환상적으로 표현된 ‘다시’라는 기회에 행복해하는 것이겠지.

‘삼신언니’라고 불렀던 빨간 정장의 미녀가 난발했던 대사, “널 만들어서 세상에 내어 놓을 때 내가 참 행복했거든,” 이 역시 오늘을 사는 이 땅의 모든 이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다. 푸룻푸룻 미래를 꿈꾸어야 할 젊은이들이 스스로를 ‘잉여’요 ‘루저’라 부르는 세상이다. 쓰임이 다하면 버려지는 “호모 인턴스”의 비애를 온 몸으로 겪어내는 청년들이 가득하다. 한창 일할 40대에 죽어라 달리던 경쟁의 트랙에서 실적 따라 정리해고되고 구조조정되는 중년의 자존감도 바닥이다. 정말 이렇게 살려고 이 땅에 태어났나 “자괴감이 드는” 인생들에게 눈에 보이는 예쁜 삼신언니의 입으로 전해진 저 말은 큰 위로였으리라. 아, 적어도 우리는 신이지을 때만큼은 차별 없이 ‘행복’했던 귀중한 생명들이구나.

어디 그뿐이랴. 기승전결의 납득이 가는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시절에 내 능력 ‘너머’에서 오는 도움의 손길은 얼마나 간절할까. 미혼모였던 은탁의 어머니가 뽕소니범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 도깨비는 어머니의 간절함과 은탁의 힘차게 뛰는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은총(?)을 베풀다.

“네가 살려달라는 것이 네가 아니구나.”

자신은 죽어가면서도 아이를 살려달라는 어린 엄마의 간절함에 도깨비는 생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고 모녀를 살려낸다.

“그대는 운이 좋았다. 마음 약한 신(神)을 만났으니.”

한겨울 눈발과 함께 흩날리는 복숭아 꽃잎에, 기럭지 바람직한 ‘공유’의 비주얼과 목소리로 들려온 대사는 드라마를 보는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켰으리라. 응, 그래. 우리에게도 저런 기적이 있으면 좋겠어. 뭐 어떤 신이여도 좋아. 이성적이고 계산적인 이 달음질에 지쳤어. 너무 힘겨워. 꼭 유신론자여서가 아니다. 시청자들은 자신들의 ‘합리적’ 노력 너머에서 작동하는 선물 같은 기적을 바라며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전개에 대리만족한 것일지도 모른다.

차별 없는 귀한 생명으로, 다시, 너머의 힘을 바라며! 드라마 <도깨비>가 동일 트랙, 무한경쟁의 후기-근대적 삶에 지친 대한민국 젊은이들과 중년에게 준 판타지는 바로 이것이 아닐까? 생명에 등급을 짓고 차별하는 세상에 대한 불만, 한 번 넘어지거나 늦게 뛰어도 탈락되고 영영 재기가 불가능한 경쟁 시스템에 대한 좌절감, 하여 어떻게든 내 능력 ‘너머’의 도움이 선물처럼 오기를 바라는 간절함. 드라마를 보는 그 어느 누구도 도깨비가 실재하고 그런 기적을 인간들에게 가져다 줄 것이라 믿지는 않았겠지만, 적어도 영상물 안에서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다시 살아갈 기회와 힘을 부여하는 신적 존재는 잠시나마 가상의 위로와 소망이 되었던 것 같다.

물론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의 신은 결코 인간의 모습을 하거나 인간의 몸에 빙의하지 않는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이시지만, 시간을 멈추지도 인간 이성을 잠재우시지도 않는다. “에에? 내가 취한 거야? 겨우 위스키 한 잔에?” 덕화는 칠성신에 빙의된 순간에 자의식을 잃었지만, 기독교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언제나 인간에게 자유 의지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찾으라고 초청하신다. 늘 함께 있으니 두드려라. 이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똑딱 원하는 것을 눈앞에 내어주시겠다는 마술적 약속이 아니다. 내가 함께 한다. 그러니 너희들이 만들어 내어라. 한 번의 실수로 버려지는 시스템은 내가 원하는 질서가 아니다. 나는 헤세드(은총,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사랑이 너와 나의 관계에서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사이에서도 가능케 하여라. 지금 이 땅에 버려지는 생명이 얼마나 많은지 둘러 봐라. 물리적 생명뿐만이 아니다. 사회적 생명도 그렇다. 하나님은 다음 생이나 그 다음 생을 바라는 삶 대신에, 지금 여기에서 살아갈 기회와 힘을 부여하는 관계를, 장(場)을 건설하라고 신자들을 초청하신다.

그러니 난데없는 도깨비 열풍에 신자로서 관심할 부분은, 그 드라마에 사용된 상징이 기독교적이니 아니니 하는 싸움이 아니다. 사람을 귀히 대접하지 않는 이 차갑고 계산적인 세상에서, 버려져서 시리고 버려질까봐 불안한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생명으로 환영하고 다시 삶을 살아낼 버팀목이 되며 너머의 힘을 알려주는 선교의 텃밭이 주어졌음을 깨닫는 것이다.

에코세대의 교회이탈요인 설문조사 결과⁷⁾

구분	항목	전체		성 별				직 분							
				남		여		대학·청년 리더		대학·청년 부원		교역자		장년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교회/교회 지도자 부분	교역자실망	432	20.3	190	20.6	242	20.1	149	21.6	283	19.7	76	24.5	80	19.7
	헌금강요	63	3.0	35	3.8	28	2.3	11	1.6	52	3.6	7	2.3	13	3.2
	헌신요구	417	19.6	175	19.0	242	20.1	136	19.7	281	19.6	72	23.2	73	18.0
	평신도지도자 실망	289	13.6	102	11.1	187	15.5	96	13.9	193	13.4	15	4.8	52	12.8
	정치적성향차이	162	7.6	96	10.4	66	5.5	43	6.2	119	8.3	20	6.5	34	8.4
	교회운영실망	580	27.3	238	25.8	342	28.4	188	27.2	392	27.3	82	26.5	114	28.1
	청년배려미흡	184	8.7	85	9.2	99	8.2	68	9.8	116	8.1	38	12.3	40	9.9
	합계	2,127	100.0	921	100.0	1,206	100.0	691	100.0	1,436	100.0	310	100.0	406	100.0
관계/공동체 부분	교역자에게상처	229	10.7	112	12.1	117	9.6	80	11.6	149	10.3	55	17.9	54	13.4
	교인에게상처	529	24.7	201	21.8	328	27.0	171	24.7	358	24.7	67	21.8	93	23.0
	교회내 연애후이별	98	4.6	63	6.8	35	2.9	35	5.1	63	4.4	11	3.6	17	4.2
	친한사람없어서	390	18.2	176	19.1	214	17.6	112	16.2	278	19.2	22	7.1	68	16.8
	배타적분위기	552	25.8	242	26.2	310	25.5	174	25.2	378	26.1	80	26.0	92	22.8
	교회불만족	341	15.9	129	14.0	212	17.4	119	17.2	222	15.3	73	23.7	80	19.8
	합계	2,139	100.0	923	100.0	1,216	100.0	691	100.0	1,448	100.0	308	100.0	404	100.0
개인/가정 부분	부모의 강요	360	16.9	156	17.1	204	16.8	107	15.5	253	17.6	60	19.2	74	18.3
	부모의이중적 모습	245	11.5	96	10.5	149	12.3	87	12.6	158	11.0	79	25.3	56	13.8
	타지역 이사	260	12.2	117	12.8	143	11.8	74	10.7	186	12.9	44	14.1	59	14.6
	가족반대/배척	221	10.4	84	9.2	137	11.3	69	10.0	152	10.6	9	2.9	34	8.4
	죄가 많아서	36	1.7	24	2.6	12	1.0	7	1.0	29	2.0	2	0.6	13	3.2
	고난과위기	462	21.7	174	19.0	288	23.7	170	24.6	292	20.3	44	14.1	63	15.6
	쉬고싶어서	325	15.3	151	16.5	174	14.3	100	14.5	225	15.6	35	11.2	50	12.3
	교리와삶의괴리	221	10.4	112	12.3	109	9.0	77	11.1	144	10.0	39	12.5	56	13.8
합계	2,130	100.0	914	100.0	1,216	100.0	691	100.0	1,439	100.0	312	100.0	405	100.0	

사회/ 경제적인 부분	취업난,경제난	582	27.3	250	27.2	332	27.3	201	29.1	381	26.4	104	33.4	104	25.7
	과다한업무	415	19.4	164	17.8	251	20.7	144	20.8	271	18.8	40	12.9	60	14.8
	세상의위로	166	7.8	70	7.6	96	7.9	50	7.2	116	8.0	23	7.4	35	8.6
	세속화된가치관	336	15.7	150	16.3	186	15.3	106	15.3	230	15.9	55	17.7	71	17.5
	이유를몰라서	386	18.1	161	17.5	225	18.5	106	15.3	280	19.4	63	20.3	63	15.6
	사회적신뢰도 하락에 따른 실망	112	5.2	62	6.7	50	4.1	29	4.2	83	5.7	10	3.2	30	7.4
	기타	138	6.5	63	6.9	75	6.2	55	8.1	83	5.8	16	5.1	42	10.4
	합계	2,135	100.0	920	100.0	1,215	100.0	691	100.0	1,444	100.0	311	100.0	405	100.0
큰영향	교회/지도자	271	12.7	146	15.9	125	10.3	66	9.5	205	14.2	68	21.7	75	18.3
	관계/공동체	1145	53.6	451	49.1	694	57.1	401	57.9	744	51.6	149	47.5	203	49.6
	개인/가족	162	7.6	71	7.7	91	7.5	48	6.9	114	7.9	15	4.8	31	7.6
	사회/경제	557	26.1	251	27.3	306	25.2	177	25.6	380	26.3	82	26.1	100	24.4
	합계	2,135	100.0	919	100.0	1,216	100.0	692	100.0	1,443	100.0	314	100.0	409	100.0

7) 한국지도자센터, 제9회 바른신학 균형목회 세미나 “울림세대 일어나서 함께가자” 자료집

2017년 문화선교연구원 문화포럼 1차

탈종교시대, 한국교회는 어디로 가야하나

부록 2

-문화선교 연구원 소개-



문화선교연구원의 사명은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복음적 가치로 문화를 변혁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문화선교연구원은 다원주의와 소비문화적인 가치관의 혼돈으로 인한 기독교 문화의 정체성에 대한 위협과 선교의 위기를 적극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1998년 설립되었습니다. 기독교 문화를 신학적으로 평가하고 교회와 문화계 현장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창조적인 기독교문화를 연구, 보급합니다.

문화목회 연구

21세기 문화의 시대, 소통과 변혁이라는 모토 아래, 교회의 문화선교를 돕고 나아가 문화적 차원에서의 기독교의 사회 참여의 이론적 근거를 탐구하는 연구 활동을 전개합니다.

- 기독교문화 학술심포지움, 문화포럼, 문화선교리더십 연구
- 창조적 문화 읽기, 단행본 '문화연구신서' 발간
- 성경적 영화 읽기 교재 '무비톡가이드' 발간

문화 네트워크

- 경제경영, 정치, 통일, 미디어 등 각 분야 기독교 NGO와 연대
- : 정기 월례포럼 및 '한국 기독교 선정 올해의 10대 이슈' 발표 등
- 교회 및 교육기관과 연계

문화 플랫폼

실천적 활동 영역으로서, 대안적이고 창조적인 문화 콘텐츠 제작과 지원사역을 통해 오늘의 기독교 문화지형을 만들어갑니다.

- 웹진(www.cricum.org) 운영
- SIAFF 서울국제사랑영화제 지원
- 기독교영화전용관 필름포럼 운영 지원
- 필름포럼 아카데미 기획

다음세대 문화선교

- 교회학교를 위한 문화콘텐츠 제공
- '가나안 성도' 선교
- 문화목회 인큐베이팅

History

기독교문화 학술심포지움

- 제1회 기독교 문화, 소통과 변혁을 향하여(2004.05.13.)
- 제2회 기독교문화와 상상력(2005.11.26.)
- 제3회 기독교문화와 한국문화(2006.11.25.)
- 제4회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2007.12.01.)
- 제5회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II): 책임적 소비문화를 지향하며(2008.11.29.)
- 제6회 웹 2.0시대, 소통과 공공성의 문화선교(2009.11.28.)
- 제7회 미학의 시대, 기독교미학을 말하다: 예술과 그리스도인(2010.11.20.)
- 제8회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문화목회(2011.10.29.)
- 제9회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문화목회(2012.11.19.)

문화포럼

- 2003 ■갈등, 그 화해의 길(2003.11.08.)

- 2004 ■ 주5일 근무제 시대를 준비하는 한국교회의 문화선교(2004.05.13.)
- 2006 ■ 2006년 문화동향 및 전망
 - 대중문화에 대한 문화선교적 평가와 대응(2006.01.24.)
 ■ 한국교회 부활절문화를 생각한다!(2006.03.16.)
 ■ <다빈치 코드>를 통한 문화교육(2006.04.27.)
- 2007 ■ <밀양>, 기독교에 말 걸다(2007.06.14.)
- 2008 ■ 웹 2.0-촛불시대, 교회는 무엇을 주목해야 하는가?(2008.07.03.)
 ■ 창조론과 진화론 허용되지 않는 소통(2008.09.11.)
- 2009 ■ 창조론과 진화론, 소통의 길은 없는가?
 - 영화 <익스펠드>를 통해 그 길을 모색해 보다(2009.05.14.)
 ■ 교회와 사회, 문화적 감수성으로 만나다(2009.05.14.)
 ■ 문화목회 2.0 컨퍼런스(1) 교회 문화센터의 창조적 운영(2009.09.29.)
 ■ 문화목회 2.0 컨퍼런스(2) 소통과 만남의 공간, 교회 카페의 창조적 운영(2009.10.30.)
- 2010 ■ 문화목회 2.0 컨퍼런스(1) 교회, 지역사회와 소통하기-교회 도서관의 창조적 운영 (2010.03.25.)
 ■ 문화목회 2.0 컨퍼런스(2)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교회건축과 공간 활용의 창조적 모색 - 교회 건축, 지역사회와 만나다(2010.06.29.)
 ■ 문화목회 2.0 컨퍼런스(3) 도시교회, 지역사회와 소통하기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절기 문화행사(2010.10.14.)
 ■ 대중문화, 영성을 주목하다 - 그 현상과 교회의 과제(2010.07.01.)
 ■ 한국 기독교영화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2010.10.25.)
- 2011 ■ 한국교회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2011.08.25.)
- 2012 ■ 청년공감포럼(2012.05.26.)
 ■ 레이디가가 논쟁, 한국교회에 무엇을 남겼나 - 그 의미와 과제(2012.06.07.)

출간도서

문화선교연구신서

- 문화선교의 이론과 실제(개정판)
- 감성세대의 영화 읽기
- 기독교 커뮤니케이션
- 기독교 문화, 소통과 변혁을 향하여
- 기독교 문화와 상상력
-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 소비문화시대의 기독교

문화목회가이드Book시리즈

- 스마트시대 목회가이드Book

10대 이슈 및 기독교인 사회의식조사

- 2015 10대 이슈 및 기독교인 사회의식조사
- 2016 10대 이슈 및 기독교인 사회의식조사 (근간 예정)

2017 1차 문화포럼

발행일 2017.03.10.

발행처 문화선교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성산로 527(대신동), B1. Tel. 02-743-2535 www.cricum.org

이 자료집의 내용은 문화선교연구원의 허락 없이 무단 전재 또는 복제하실 수 없습니다.